

학생독립운동 지식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The Management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of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장 우 권(Woo-Kwon Chang)*

<목 차>

- | | |
|-----------------|---------------------------|
| I. 서론 | III. 학생독립운동 지식정보자원 형성과 관리 |
| II. 이론적 배경 | 1. 지식정보자원 형성과 발전 |
| 1. 독립운동과 학생독립운동 | 2. 지식정보자원관리 |
| 2. 지식정보자원과 아카이브 | 3. 지식정보자원과 아카이브 |
| | IV. 결론 |

초 록

이 연구는 문헌정보와 아카이브적 측면에서 학생독립운동의 지식정보자원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자료수집, 자료해제, DB구축과 아카이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는 학생독립운동과 지식정보자원 관련 문헌적 고찰과 일제식민지 치하 학생독립운동 시발과 그 운동과정에서 생성된 자료들의 유통과 이들 자료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적 조사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운동과 투옥 그리고 재판의 과정에서 다양한 문헌정보를 생산했으며 이것을 기반으로 정보자원관리와 아카이브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독립운동의 지식정보자원에 대한 가치와 역량을 나타내고 진일보한 학생독립운동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키워드: 학생독립운동, 일제식민지, 아카이브, 지식정보자원, 지식정보자원관리

ABSTRACT

This research aims to present an archive on the management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of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in a viewpoint document information and archives. This study consists of two aspects : a document investigation based on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and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and in a practical examine based on the first departure of SIM, distribution of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and their management. They are produced a various of document knowledge information and was formed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and archives in a library, a newspaper office, Independence Hall, Nation Archives of Korea, and school media center. The result of this research was looked forward to help to R&D of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in values and competencies for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Keywords: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Archive,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Management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

* 이 글은 2012년도 전남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wk1961@jnu.ac.kr)

•논문접수: 2015년 2월 20일 •최초심사: 2015년 3월 9일 •게재확정: 2015년 3월 23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203-239, 2015. [http://dx.doi.org/10.16981/kliss.46.201503.203]

I. 서론

우리의 독립운동은 역사적 동인(動因)과 시공간에서 발생하였다. 이것은 19세기 말 동학운동, 1919년 3·1운동, 1926년 6·10 만세운동,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1945년 광복 등 민족과 국가의 정체성확립과 발전으로 확대(민족과 국가의 자존과 자주)되었다.

학생독립운동은 그 형성과 발전에서 다수의 지식정보자원이 발생하였다. 학생독립운동 관련 자료는 독립운동사의 가치있는 지식정보자원으로서 민족과 국가의 자산이다. 지식정보자원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지식정보자원의 관리의 지식정보의 창출, 축적, 유통, 공유·활용 등으로 구성되는 지적정보활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체계화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이다(장우권 2012, 404).

학생독립운동의 역사는 1920년대부터 형성되어왔다. 1920년대는 3·1운동이후 근대적 교육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학생 수가 급증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학생은 지적 욕구의 증대, 사회적 상승에 대한 기대감에 비해,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의 제약으로 현실모순을 절감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위치에 있었다. 이와 같은 일체의 민족 차별과 식미지 교육현실은 자연히 이에 저항하는 학생운동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김성민 2013, 35, 49). 이후 동맹휴학이 전국적으로 일어났으며, 1926년 6·10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드디어 1929년 11월 3일 전라남도 광주에서 학생독립운동이 발생하여 이듬해까지 전국 194개교에서 54,000여명이 참가한 거족적인 항일운동이었다(光州學生獨立運動 略史 2009, 23). 이처럼 국내외적으로 확산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곳곳마다 많은 지식정보자원을 생성하였고 관리되었다. 그러나 이후 독립운동의 탄압과 수감 그리고 주역들의 해외로 이주, 행방전후의 정치적, 경제, 역사적 환경의 변화로 수많은 지식정보자원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어 있어 이에 대한 현황 조사와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생독립운동에서 나타난 자료를 지식정보자원과 아카이브 가치측면에서 살펴보고 학생독립운동의 지식정보자원 형성과 발전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를 조사·분석하여 효율적인 자료수집, 해제, DB구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내용과 방법은 국내외 한인의 학생독립운동 측면에서 문헌과 현지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기간은 2009.8.1-2014.12.31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국가와 지역은 한국, 일본, 중국 등이다. 조사대상기관은 도서관, 독립기념관, 기록원, 언론사, 각급 학교 등으로 실시되었다.

II. 이론적 배경

1. 독립운동과 학생독립운동

가. 독립운동(獨立運動)

일반적으로 독립운동은 식민지배 기간 이후에 식민지화된 국가에 의해 정치적 독립이 성취되는 행위이다. 20세기 민족주의적 독립운동은 거의 모든 식민지에서 성장하였고, 2차 세계대전 이후 대부분 제3세계에서 식민지적 지배를 종식시키는 데 일차적으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사회학 사전 2000). 한국의 경우 구한말과 일제강점기(1894-1945) 국내외서 전개된 항일민족독립운동이다. 다음 <표 1>은 항일민족독립운동 전개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항일민족독립운동 전개 과정

시대	운동과 사건		전개내용	
	운동	사건	원인	결과
구한말 (1894-1909)	의병전쟁과 계몽운동	동학농민운동 (1894)	· 부정(不正)과 외세(外勢) 항거	· 관군, 일본군에 의해 실패 · 위정자의 반성과 각성 촉구 → 갑오개혁(甲午改革)
		을미의병 (1895)	· 명성왕후 시해 · 단발령 시행	· 친일관료와 일본인 처단
		을사의병 (1905)	· 을사늑약파기 · 친일정부관료 축출	· 초기 활발, 일본군 진압
		정미의병 (1907)	· 고종강제퇴위 · 대한제국 군대 해산 · 박승환 자결	· 남한대토벌작전(일제) 초토화, 근거지 이동(만주, 연해주) → 독립군
1910년대 (1910-1919)	민족독립운동	독립운동 (1907-1918)	· 비밀결사형태 항일운동(일제 무단통치) · 독립운동 기지건설(해외)	· 독립의 당위성 고취
		2·8독립운동 (1918)	· 1918.1. 미국 대통령 윌슨이 발표한 평화원칙 14조 · 1918.11. 1차 세계대전 휴전조약	· 3.1운동 발단에 직접적인 영향
		3·1운동 (1919)	· 고종의 독살 · 일제강점기 지배 항거	· 민주공화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 립, 무단정치에서 회유(문화) 정치 로 변화, 중국 5.4운동, 인도, 베 트남, 이집트 독립운동에 영향
1920년대 (1920-1929)	민족독립운동	6·10만세운동 (1926)	· 순종의 장례 · 전국적·전민중적인 항일운동	· 경성→고성, 원산, 개성, 홍성, 평양, 강경 등 전국적
		광주학생 독립운동 (1929)	· 3.1운동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 · 일본인 교육자들의 억압, 무시, 우민화 정책 · 일본인 학생들과의 충돌 (나주, 1929.10.30)	· 발단(나주) · 점화(광주 1차, 2차) · 폭발 국내외
1930년대 이후 (1930-1945)	민족독립운동	국내외 항일운동	· 국내외 항일운동(임시정부, 독립군 등) · 카이로선언(1943. 미, 영, 중) · 포츠담선언(1945.미, 영, 중, 소)	· 국내외 독립운동 · 광복

나. 학생독립운동

(1) 독립운동의 주체

학생은 역사적 전환기마다 능동적 주체자이었으며 상아탑의 숭고한 교육과 학문의 이념을 행동으로 나타냈다. 특히 1920년대는 학생중심의 독립운동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10만세운동(1926)과 광주학생독립운동(1929)이 대표적이다.

(2) 학생운동의 형태와 식민지 인식

① 학생단체의 조직

3·1운동 이후 학생들은 교육현장에서 식민지 현실을 자각하고 스스로 민족운동의 주체로서 이의 타개책을 모색해 갔다. 즉 민족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숙한 시민민족주의의 구성체로서의 위치를 갖게 되었고 이를 실천으로 옮겼다. 1920년대에 조직하여 활동한 학생단체의 수는 전체 392개로 나타났다<표 2>(趙東杰, 1993, 212-232).

<표 2> 1920년대 학생단체의 수

연도	1920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1929	합계
친목단체	8	36	66	54	11	69	51	37	26	15	373
운동단체	4	-	3	3	1	6	2	-	-	-	19

특히 운동단체는 이념적 성향이 뚜렷하고 활동목표가 항일투쟁에 있었다. 이들은 일제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밀지하조직으로 결성하여 학생의 의식수준을 급성장시켰다. 대표적으로 경성학생연맹(京城學生聯盟)과 조선학생과학연구회(朝鮮學生科學研究會)가 있다. 이들의 창립강령과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경성학생연맹과 조선학생과학연구회

학생운동조직	창립	강령	활동
경성학생연맹 (一記者 1926, 51; 評江汕二 1979, 160; 李磐松 1933, 43)	1925.11	“과학사상의 연구, 보급과 당면문제 의 自決, 미래사회 전위의 역군될 필 요한 훈련을 기함”	· 서울과 사회주의 인사 지원 · 반종교활동에 치중 · 부분적 활동에 머물
조선학생과학연구회 (張錫興 1994)	1925.11	“사회과학 보급, 학생의 사상통일과 상호단결, 인간본위 교육의 실시, 조 선학생 당면문제의 해결”	· 고려공산청년회와 연계 · 6·10만세운동을 주도적으로 전개 (학생운동의 주도적 단체로 부상) · 재일 신흥과학연구회 등의 조선학생 회와 연계

② 조선학생과학연구회와 독서회

조선학생과학연구회는 서울지역 각 학교에 독서회 결성 추진과 지원을 하기로 하고 중앙고보, 배재고보, 휘문고보, 보성전문학교 등에 독서회를 성립하였다(윤경로 1988, 355, 366-367; 姜在彦 1979, 380). 1927-1929년간 전국 각 중등학교에 사회과학연구 연구(임주홍 1932, 260-263, 277-279; 金性旼 2006, 201)를 목적으로 한 독서회가 광범위하게 조직되었고 식민지 현상을 보다 과학적으로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다음은 각 지방의 독서회 조직과 활동내역이다.

- 1927. 부산제2상업학교 독서회 : 식민지 현실의 타개책을 논의
- 1928. 북청농업학교독서회: 독서력의 양성, 학식 교환, 참고서 이용 등(학교 당국 허가 받음), 전교 학생대회 개최, 전교생 약 70명을 선출하여 독서토론 진행, 학교교실을 이용하여 공개적으로 사회과학을 학습
- 1928. 이리농립학교 마르크스 사회과학연구회 조직
- 1929. 강릉공립농업학교 28명의 학생들이 독서회조직, 사회주의 서적 회람강독 광주농업독서회, 광주고보독서회, 광주사범독서회 등

독서회는 개별학교 단위로 조직되기도 하였으나 지역 중등학교 학생들의 연합조직으로 결성되기도 했다. 대구의 신우동맹, 광주의 성진회, 진주의 동무사 등이다. 대도시로서 고보, 농교, 사범학교 등 각종 중등학교가 설립된 지역은 학생들의 유대관계로 인해 연합조직이 발달했다. 이들은 맹휴나 시위운동도 연합하여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다(김성민 2013, 110).

③ 동맹휴학

동맹휴학(同盟休學)은 학교에 대한 불만과 식민통치에 대한 거부와 독립을 희구하는 민족적 염원의 발로였다. 동맹휴학의 지속적인 항쟁은 항일독립정신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으로 귀결되었다. 동맹휴학횟수는 400여건으로 나타났다.

<표 4> 1920년대 맹휴 건수

연도	1921	1922	1923	1924	1925	1926	1927	1928	합계
횟수	23(33)	52	57	14(24)	48	55	72	83	404*(424)**

* 朝鮮總督府警務局. 『朝鮮に於ける同盟休校の考察』(1929), p.10.

** (424) 朝鮮總督府警務局. 『高等警察報』(1936), pp.40-41.

다음 (표 5)는 동맹휴학의 원인과 조치를 보여주고 있다(김기주 2009, 25-26;朝鮮總督府警務局 1929, 13-14).

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1호)

<표 5> 동맹휴학의 원인과 조치

동맹휴학의 원인	동맹휴학의 조치
① 학교설비·교칙·학과·기타에 의한 맹휴 - 졸업생의 자격인정, 국어사용 요구, 도서실의 개방 요구, 운동장의 확장, 우수교원의 증원 및 보충 등 학사운영의 제반사항 ② 교원배척에 관한 맹휴 ③ 학교 내부에서 생긴 일에 관한 맹휴 ④ 학생 간에 생긴 일에 의한 맹휴 ⑤ 지방 문제에 관한 맹휴 ⑥ 민족의식 및 좌경사상의 영향을 받은 맹휴 - 조선인 차별의 철폐, 일본인 교원을 조선인 교원으로 교체할 것, 조선어과 신설 존중 및 시간 증가 요구, 학우회·교우회의 자치 요구, 학교 내 집회·언론·출판의 자유 요구, 일본 신민화 교육정책 반대 등 상당히 다양화	· 1920년대 맹휴 404건 중 학교당국 수용33건(85) · 회유와 설득, 주동자 처벌(7,674명; 학교처벌 6,809명, 재판 172명, 훈계 등 693명 모두 865명)

④ 동맹휴학에 대한 언론의 태도

언론은 학생들의 독립운동을 어떤 시각으로 보았는가는 다음 <표 6>의 동아일보 논조에서 잘 나타나 있다.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자제 촉구에서 학무국의 반성으로 진일보하고 있다.

<표 6> 동맹휴학에 대한 언론의 인식태도

논설 제목	논설내용
· 맹휴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제기 · 「同盟休校問題(一)」 (동아일보 1920년 6.16, 17일자)	“..학생의 맹휴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자간의 일시적인 충돌로서 이해관계가 아닌 쌍방간 양해의 부족으로 발생한 것..” 이라 하며 학생에게는 자제를 촉구하고 학교당국에게는 학생의 정당한 요구를 숙고하여 반영하라고 함
· 「學生諸君에게 告하노라 -同盟休校의 惡習(中)」 (동아일보 1922.2.12.일자)	이전의 논조와 편이하게 일방적으로 맹휴 행위를 맹비난하면서 학생의 자제를 촉구
· 「이것이 重大問題」 (1924.6.2.일자) · 지금까지 학생일변도의 비판에서 다소 후퇴하여 사회와 학교가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가질 것을 강조	“각 학교에서 상스럽지 못한 일이 생길 때에 우리는 학생이 지각없이 경거망동을 책망할지언정 옹호할 생각이 적고 학교당사자의 체면을 존중하여 엄숙히 처벌함을 지당하다고 수긍치는 아니할 지언정 무리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그러나 ... 학교당사자도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幼子문제 같이 중대한 문제를 소홀히 하는 폐단이 아주 많지 아니 한가”
· 「同盟事件과 教育者의 責任-德育缺陷이 그 原因」 (1927.8.28.일자)	“각 학교 맹휴의 인과관계에서 첫째는 교육자의 책임이다. 교육의 근본적 의의가 인격의 향상과 능력의 발전에 있다고 하면 교육자 자신부터 완전한 인격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맹휴의 원인이 십중팔구 교사의 불비이거나 인격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므로 학교당국자가 충분히 반성 자각해야 할 사항이다.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맹휴가 일어난 경우 학생을 사법경찰의 손에 넘겨 시비선악을 가리려는 것은 교육의 과멸을 의미한다. 둘째는 학생의 자중이다...”
· 「盟休頻發과 教育行政의 失敗」 (1927.8.31.일자)	“맹휴의 이유로 설비의 불충분, 불량교원의 배척, 민족감정의 무시를 들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학생의 경거망동으로만 돌릴 수 없으며 그 원인으로 보아 교육행정의 실패이다. 교육행정을 맡고 있는 학무당국의 실책은 첫째 민족적 사상·감정의 무시에서 비롯되었으며 학교에서 학생에게 민족적 열등감을 야기시킨 것은 교육행정의 실패를 의미한다. 둘째 불량교사의 채용이다. 인경으로 교도하고 덕망으로 가모하시켜야 할 교육자가

	<p>치자의 태도로 임하고 정략으로 교도하는 추태는 교육의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다. 셋째 설비의 불충분이다. 현재 조선은 신문화의 동경과 각성한 대사가 황류하고 있는데 그러한 민중의 열망에 순응하여 설비를 완비하여야 한다. 이를 무시한 학무당국이 맹휴를 촉발하였으니 반성을 촉구한다.”</p>
<p>· 「盟休學生의 司法處理」 (1928.8.27.일자)</p>	<p>“맹휴의 빈도와 규모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그 원인은 제쳐두고 젊은 학생들이 경찰에 체포되고 사법당국에 의해 처벌을 받는 상황은 학교문제를 벗어나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법의 적용도 범위와 한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근대 사회에서 학원의 자유와 학문의 독립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선은 학교 내에서 학문의 연구와 교육이 극단적으로 제한되어 있고 중등학생에게 형벌을 가혹하게 적용하고 있다. 맹휴의 원인은 조선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며 또 한편으로는 교육방침과 교육행정의 결함에도 禍因이 되고 있다. 더 많은 말을 하고 싶으나 자유가 없음을 유감으로 생각한다.”</p>

⑤ 식민지인식과 학생운동

학생들은 민족의 참담한 현실에 대해 자각하여 깊이 고민하고 이를 위한 행동으로 그 타개책을 모색했으며 다양한 관심사를 가졌다<표 7>.

<표 7> 학생들의 식민지와 사회인식

<p>· 「국경의 비오는 밤」 : 압록강에 민족의 비애를 담음</p>	<p>“아, 푸르게 흐르는 압록강이여. ... 백의민의 눈물은 한없이 흐르고 있다. 저쪽은 중국이요 이쪽은 조선이다. 오직 그 사이에 생활하는 백의민이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부자유를 받아 얼마나 원한이 많은 세상을 건너고 있는가. ...만주의 광야에는 기백만의 동포가 있다. 그곳에는 얼마나 백의민의 원한이 있는지 너는 아는가. 만주에 표랑하는 동포들의 비가를 생각하지 않는가.... 압록의 조선에도 광명이 비추고 있다. 백의민의 동포여, 우리들도 잘 살아 보자. 그리하여 삼천리 무궁화의 들녘에서 영원히 영원히 타인의 간섭없이 생활하자.” (孤憶, 「국경의 비오는 밤」, 『培材』 제10호, 1926.12.)</p>
<p>· 식민지 민족현실을 자신의 문제로 자각</p>	<p>“純粹한 白衣族을 계승할 자도 우리들이요 황폐한 權域을 개척할자도 우리들이다. 만환하고 강한 팔과 다리로 개척의 삽을 굳게 잡고 自作自給, 自制自決, 自助自強하여 결코 기왕의 간섭자나 감독자를 필요치 않고 황폐해진 이 강산을 빛나게 하지 않으면 아노딘다.” (李錫奎, 「스스로 나아가는 역군이 되자」, 『培材』 제10호, 1926.12.)</p>
<p>· 자본주의 사회를 분석하거나 세계정세를 논함</p>	<p>「농부의 閑話」(『휘문』 제2호, 1924.6.), 「도회와 농촌」, 「국민성과 평화」(『송실』 제4호, 1926.11.), 「농촌문제와 우리들의 각오」(『배제』 제11호, 1928.3.), 「현대와 우리」(『고창』 제4호, 1928.4.), 「조선 소비자협동조합 운동의 이론체계서론」(『송실전문학교 학생기독교청년회』 1928.6.), 「사회제도는 불가변적이 아니다」(『桂友』 제4호, 1928.8.), 「우리의 급무는 경제?교육?」(『오산』 제2호, 1929.6.) 등 (朝鮮總督府警務局 圖書課, 『出版物より觀たる朝鮮人學生の思想的傾向』(1931.5).)</p>

(3) 광주학생독립운동

① 성진회와 독서회

광주지역학생들은 1926년 ‘醒進會’라는 비밀결사와 1929년 ‘讀書會中央本部’, ‘學校讀書會’를 조직하여 학생독립운동을 실질적으로 주도였다. 다음 <표 8>, <표 9>는 성진회, 독서중앙본부 조직과 활동을 잘 보여주고 있다.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1호)

〈표 8〉 성진회조직과 활동

조직	창립	목적	활동
醒進會	1926.11	조선민족의 독립과 공산주의 사회실현을 위해 공산주의 이론을 연구 (예삼종결서·판결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 (광주고보) 장재성, 황재일, 국순엽, 안중익, 김창주, 최용석, 최규창, 김광용, 정우채, 임주홍; (광주농교) 정남균, 정동수, 문승수, 정종석(충북 옥천), 김한필(경북상주), 박인생 · 사회과학연구의 정진, 비밀업수, 한글신문의 숙독, 동지의 획득(결의사항) · 매월 2회(1·3주 토요일)씩 회합, 수명씩 각 동지의 하숙에 회합·이반자가 생겨 1927.3월 자진해산 · 경찰과 검찰은 성진회가 형식상 해산했으나 실질적으로 독서모임을 지속하여 1929년 독서회로 연결되었다고 봄(성진회 확대과정) · 재판기록(『昭和5年 刑公合第47號 判決文』, 광주지방법원, 1930.10.27,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13, pp.1628-166)1)

〈표 9〉 독서회중앙본부 조직과 활동

조직	창립	목적	활동
讀書會 中央 本部	1926.6	마르크스주의 연구 실행에 의하여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독립시키고 또 조선에서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고 공산주의를 실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재성의 지도하에 김상환, 김보섭, 윤창하, 송동식, 강달모, 조길룡, 김순복 참여 · 활동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원은 매주 1회씩 회합하여 협의, 몇 개의 소그룹으로 나눔으로써 사회과학연구의 밑도를 높임, 비밀 유지에도 효과적 - 각 학교별 독서회 중심으로 운영하되 이를 통할하는 고서회중앙부를 설치함으로써 독서회의 통일적인 운영을 도모함 - 독서회 중앙부의 경우 각 학교별 독서회(광주고보, 광주농업학교, 전남사범학교 등)와는 달리 출판부를 두어 각 학교별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을 등사하여 공유하도록 함 - 독서회 조직과정에는 장재성이 반드시 참석하여 사회과학연구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조직 결성을 독려 · 소비조합의 결성도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서회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 - 1929년 초순 장재성의 빵집 옆에 문방구점을 열고 경영은 김기권이 전담 - 독서회원의 모임 및 토론장소로 활용 - 장석천, 나승규 등 기성 사회인사들과도 연계된 활동 · 1929 9-10월에 모두 해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재성의 지시, 왜 해산하였는가에 대해 의견 분분 - 위장해산 등에 대한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9년 말까지 광주지역 전 중등학교에 비밀독서회가 결성됨(유사시 강한 조직력을 발휘하는 근간이 됨) * 1929.11.3 학생시위 이후 대규모 학생 검거사태가 벌어짐 * 독서회원들을 중심으로 11.12일 제2차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추진(『독립운동사자료집』 13, pp.1611-1700; 김성민 2013)

② 광주학생독립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은 1929년 11월 3일 광주에서 일어났던 한일학생간의 집단충돌사건이

1) “평소 한일합방에 불만을 품고 조선민족으로서 일본제국주의의 기반을 이탈하려는 희망과 한편 조선의 현 사회제도의 모순과 결함이 있다라고 단정하고 이를 타파하여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공산제의 신사회건설을 열망하고 있었으며 이 공산제도의 실현이 성취될 때에는 자연히 조선의 독립도 달성되리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발단이 되어 광주학생뿐 아니라 전국 194개교 5만4천명의 남녀학도들이 시위운동을 전개하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외치고 총궐기했던 민족해방운동으로서 일제의 민족차별과 식민지 노예 교육에 쌓이고 쌓인 민족적 울분을 전국적 규모로 폭발시킨 3·1운동 이후 민족해방운동이었다.”(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1974, 33) 광주학생운동 참여 학교 숫자는 조선총독부 기록상 194개교로 집계된 이후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되다가 2006년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의해 320개교로 중간집계 되었다. 그 후 2010년 8월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에 의해 358개교로 늘어났다. 또한 종전의 학생운동에 참가한 연인원이 54,000명이라고 했던 통계치는 최근에는 65,000명까지 늘어났다. 당시 상해와 만주지역 항일운동단체, 중국 국민당 및 중국 공산당이 작성한 일부자료는 과장된 면도 있지만 참여자수를 학생과 일반인을 포함해 50만 명 이상으로 추산했고, 모스크바의 프라우다지도 70만 명으로 추산했다(장우권 외 2014, p.v.).

제1-2차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개과정의 원인과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표 10>과 같다(김성민 2013, 191-215).

<표 10> 제1-2차 광주학생독립운동 전개과정

학생독립운동	전개과정과 내용
제1차 광주학생독립운동 (1929.10.30.-1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인 교육자들의 억압, 무시, 차별, 우민화 정책 · 일본인 학생들과의 충돌 1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9.10.30. 나주역에서 후쿠다와 박준체의 언쟁과 격투, ‘내일은 학교를 쉬지 말라’ - 1929.11.1. 광주역에서 한일간 학생 다툼이 통학생 전체로 확대 · 일본인 학생들과의 충돌 2차(1차 시위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9.11.3. 일제의 명치절, 전남지역 누에고치 6만석 돌과 축하식 거행 - 명치절 기미기요 침묵, 가두시위(행진가), 광주고보학생과 광주중학교 학생 충돌 - 투쟁방안 논의와 제의: 독서회 회원 오쾌일, 이형우(장재성도 참석) - 오후에 광주고보생 200명 독서회원인 김병기 주도로 시위 행진, 광주농업학교생 300여명 독서회원인 김보섭, 김상환, 김무삼, 최향남 등 주도로 교가와 운동가 부르며 시가진출, 광주사범학교생 일부 합류 - 시위 주동학생 대규모 검거 착수(편파적 한인 학생만)
제2차 광주학생독립운동 (1929.11.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9.11.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전. 장재성, 장석천, 박오봉, 강석원, 나승규 등 시위운동 계획 협의 - 장재성은 일반 민중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조선 민중이여, 쫓겨하자」 전단 원고 작성 - 12일 수업개시 시간에 거사하기로 최종 결정 - 11일 밤. 장재성, 장석천, 강석원, 박오봉, 국채진 등은 조선만의 집에 회합하여 광주의 시위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각자의 역할을 분담 - 오쾌일은 고보 독서회원인 김흥남과 강민섭과 함께 4종의 선전 전단 4,000부를 인쇄 · 1929.11.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학교에서 독서회원인 김남철, 박중주 등이 조길룡을 통해 받은 격문을 살포하여 시위를 촉발, 고보에서 강석천의 지시를 받은 김향남이 교실에서 학생들을 독려와 시위운동 개시, 시가행진과 격문2) 살포 · 1929.11.13-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여보고, 광주사범학교 등의 교내 항쟁과 수업거부, 맹휴 활동 전개 등으로 임시 휴교

2) “용감히 싸워라! 학생대중이여! 우리들의 슬로건 아래 쫓겨하라! 우리들의 승리는 오직 우리들의 단결과 희생적 투쟁에 있다!” 가) 우리 투쟁 희생자를 우리들의 힘으로 탈환하자! 나) 검거자를 즉각 석방하라! 다) 교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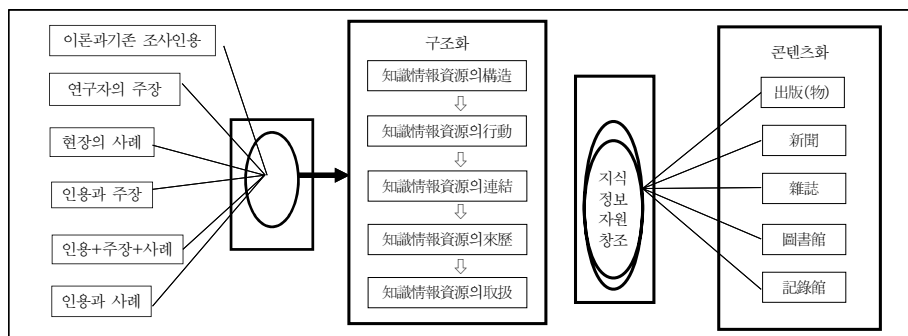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1930년 1월 학생시위 이후 서울, 수원, 인천, 개성, 부산, 김해, 대구, 전주, 함흥, 원산, 경흥, 평양, 충주, 공주, 원주, 목포, 여수 등지의 국내외 학교에서 동조시위가 잇따랐으며, 국내외 항일독립운동단체의 결집을 촉진했다(김홍길 2009, 21-22). 이것은 3·1운동 이후 최대 규모의 항일운동으로 발전한 것이었다.

2. 지식정보자원과 아카이브

가. 지식정보자원

지식정보자원은 어떤 매개체를 사용하여 기록한 지식정보와 자원이다. 광의적으로는 문자와 기호 등에 의해서 전달되는 모든 기록정보를 말하며 협의적으로는 기록정보 가운데에서도 각 학문분야에서의 학술적 가치가 있는 기록정보를 말한다. 지식정보자원은 생산과 축적(수집과 조직)을 통해서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고 확충하여 왔다. 이러한 연속적인 지식정보자원의 전달과 이용, 새로운 지식정보자원의 창조 과정을 통해서 발전적 지식정보순환이 이루어진다. 또한 지식정보자원관리는 지식정보와 그와 관련된 자원을 계획, 조직, 분배, 이용하도록 하는 모든 활동이다(사공복희, 장우권 2004, 179.; 문헌정보학용어사전 2010, 300).

또한 지식정보자원의 구성은 다양한 이론적 접근, 학자와 현장의 전문가까지 접근방법과 개념설정이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즉 지식정보자원은 지식정보의 구조, 지식정보의 행동, 지식정보의 연결, 지식정보의 내력, 지식정보의 취급 등이 하나의 요소로 구성될 때 지식정보자원이 창조된다<그림 1>(마쓰오카 세이코(松岡正剛) 외 1998).



* 이명규 외 2005, 38. [그림 2-2]; 장우권 2004, 312. [그림 11] 재구성

<그림 1> 지식정보자원의 창조프로세스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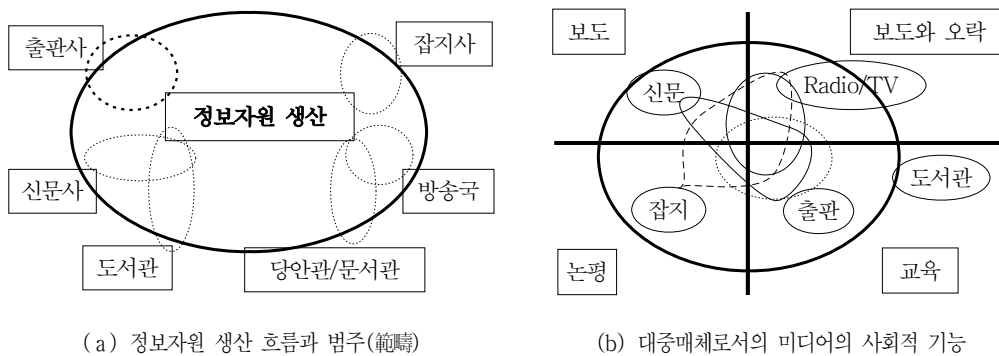
경찰권 침입을 절대 방지하라! 라) 수업료와 교유회비를 철폐하라! 마) 교유회 자치권을 획득하자! 바)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를 획득하자! 사) 직원회의에 학생대표를 참석시켜라! 아) 조선인 본위의 교육제도를 확립하라! 자) 식민지 노예교육제도를 철폐하라! 차) 사회과학연구의 자유를 획득하자! 카) 전국 학생대표자 대회를 개최하라!

나. 아카이브(archives)

아카이브는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의 존재 또는 행위와 관련하여 공적·사적으로 생산·입수된 기록으로 지속적 가치가 있으며 생산자의 기능이나 책임을 입증해 주는 데 있어 의미를 지닌 자료이다. 이것은 통상 출처와 원질서를 존중하고, 집합적 통제에 입각하여 유지된다(한국기록학회 2008, 118-119). 또한 보존기록물로 의미와 영구기록물을 보존하는 곳으로서의 기록보존소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영구기록물은 기록물을 생산한 기관이나 생산자가 기록물 중 영속하는 가치를 가진 기록물로 평가·선별된 기록이다. 이 기록은 참고적 가치, 연구적 가치, 역사적 가치를 가짐으로써 영속적 보존가치를 지닌 비현용 기록물이다(박지대 2011, 13). 여기에서 학생독립운동 관련 지식정보자원은 관리대상으로서 역사적인 의미에서 아카이브적 가치를 지닌다.

다. 학생독립운동 지식정보자원과 아카이브

학생독립운동 지식정보자원은 운동이전의 학습과 운동 중 그리고 운동 후 생성되고 축적·이용되고 있는 기록된 지식정보자원으로 도서, 신문, 잡지, 유인물 등의 도서매체와 영화, 필름, 레코드나 테이프 등의 비도서 매체, 웹DB 등의 디지털자료로 이루어진다. 또한 학생독립운동은 유·무형의 지식정보자원으로 구성된다. 유형의 지식정보자원은 그림, 책, 신문, 지도, 연구보고서와 논문, 학술지, 마이크로필름, CD-ROM, DVD, 컴퓨터파일, 웹자원 등이며, 무형의 지식정보자원은 음악(노래, 소리와 춤), 연극, 영화 등이다. 학생독립운동 아카이브는 이들의 지식정보자원을 역사적·정보적·문화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기록물이다(장우권 2012, 410). 학생독립운동 지식정보자원의 생산흐름과 대중매체로서의 미디어의 사회적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그림 2>(이명규 외 2005, 57-58).



<그림 2> 학생독립운동 지식정보자원 생산흐름과 기능

신문은 각양각색의 기사거리에 대한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보도의 기능³⁾을 갖는다. TV와 라디오에서 제공하는 정보자원은 보도, 오락, 논평, 교육기능 중에서 오락적 기능을 다른 어떤 매체보다 많이 가지고 있다. 잡지는 학문적으로 또는 일상적인 여가생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자원을 제공한다. 신문에 비해 문제점이나 상황을 심층 보도할 수 있으며, 사건을 중심으로 분석·해설하는 논평기능이 강하다. 일반신문이나 방송 등 다른 매체에 비하여 즉시성과 항구성, 신속성과 심층성을 함께 지닌 유일한 매체이다(Sandman, Rubin, & Sachman, 1972.; 사공복희, 장우권 2012, 195-196). 출판은 다양한 교육적 기능을 내포한 정보자원을 생산하고 있다. 출판은 특히 문화의 보호·전승 및 발전과 문화의 창조과정에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중매체로서 교육의 기능이 강하다(장우권 2012, 410-411).

Ⅲ. 학생독립운동 지식정보자원 형성과 관리

1. 지식정보자원 형성과 발전

학생독립운동은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는 대명제아래 공통적으로 운동의 준비와 운동의 과정 중에 국내외 각 지역에서 서로간의 동병상련의 공동체를 수립하면서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소식을 전하고, 결집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식정보자원을 생산하고 발전시켜왔다.

국내에서는 초중등학교, 민족학교와 민족사범학교, 조선YMCA, 경성학생연맹, 조선학생과 학연구회, 신간회, 성진회, 독서회중앙본부, 독서회 등의 민족교육기관과 단체(사회, 학생 등), 언론기관 등, 러시아 극동지역에서는 민족교육기관과 언론기관 등,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초창기 학교를 설립하여 민족교육을 시키다가 폐교되었으며, 중국에서는 조선족을 중심으로 서당, 소학교, 중학교 등이 민족교육기관, 언론기관 등이 설립·조직되어 운영·활동하였다. 이들 지역에서는 공히 교과서(예,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초중등학교 및 푼호즈 청년학교용 교과서), 신문, 잡지, 소식지 등이 발행되어 민족과 조선인사회, 고려인사회를 결속시킨 정치·사회·문화적 원동력이었다.

2. 지식정보자원관리

가. 지식정보자원 구성과 분포

3) 뉴스보도기능(어떤 사실을 알리기 위한 전달), 해설보도기능(해설을 위한 보도), 광고보도기능(독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보도), 오락보도기능(대중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한 보도)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지식정보자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분포되고 있다.

- 텍스트와 기사위주 생산: 출판사, 잡지사, 신문사, 방송국 등
- 음향과 영상기록매체: 라디오, TV 등
- 문화예술공연: 극장, 필름(시네마, 영화관), 가무단(歌筈團) 등
- 역사기록문헌: 도서관, 국가기록원, 당안관(檔案館), 문서관(文書館), 기록보존소(장우권 2012, 415-416)

이 글에서는 신문기사, 재판기록자료, 외무성 아세아국 제2과에서 발행한 ‘소화5년(1930)제의 조선인의 「3·1」운동 개황에 관한 건(『昭和五年在外朝鮮人「3·1」運動概況ニ關する件(1930.3.22)』,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연구현황, 全羅南道光州に於ける内鮮人生徒闘爭事件の真相並之が鮮内諸學校に及ぼしたる影響(朝鮮總督府學務局,昭和五年二月), 기타 자료 위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나. 신문기사와 학생독립운동

모든 신문은 각양각색의 기사를 통해 정보자원을 제공하는 보도의 기능을 갖는다.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한국지역과 일본지역에서 보도되고 생산된 기사를 찾아보기 위해 사용된 기사색인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미디어가온(한국언론재단), 조선일보아카이브, 동아일보아카이브, 戰前日本在住朝鮮人關係新聞記事檢索 등을 활용하여 구성되었다.

(1) 신문기사 구성

학생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중요한 관심언어로서 당시의 학생운동의 구호와 행동, 투옥과 고문, 재판과정에서 나타난 정보자원을 국내신문과 일본신문을 중심으로 조사하여 이를 주제별로, 신문사별로 색인하였다. 각 시대별로 반복적으로 자주 거론되는 신문기사의 색인어로서 격문, 고학생, 광주학생운동(광주학생사건), 남경군관학교, 독서회, 동맹휴학(맹휴), 학생과학연구, 학생회 등의 용어는 당시 신문들의 기사별로 수록된 주요 용어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다. 이를 위해 국문으로 작성된 신문은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신한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중앙일보, 중외일보 등 8종을 선정했다. 일문신문은 중앙과 지방지를 포함해 총 27종의 신문 기사를 검색하고 관련기사가 수록된 京都日出, 京城日報, 九州日報, 大阪毎日, 大阪朝日, 名古屋新聞, 萬朝報, 門司新報, 福岡日日, 北國, 新愛知, 神戶新聞, 神戶又新日報, 吳日日, 芸備日日, 中國, 參陽新報와 사상계열 신문인 無產者新聞, 社會運動通信 自由連合新聞 등의 기사를 발췌했다. 그 밖의 기사 및 색인어 선정, 표목의 배열, 기사내용의 기술 규칙 등은 일러두기로 표시했다. 이 자료는 격문, 고학생, 광주학생운동, 남경군관학교, 독서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1호)

회, 동맹휴학, 중일학생운동, 학생과학연구, 학생회, 일본지역의 학생운동의 주제에 따라 구성되었다.

다음 <표 11>은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신문기사 구성과 그 내용이다.

<표 11> 광주학생독립운동 신문기사 구성

신문기사 구성	내용
자료의 구성	· 국내 : 동아일보, 매일신보, 시대일보, 신한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 중앙일보, 중외일보(8종) · 일본 : 京都日出, 京城日報, 九州日報, 大阪毎日, 大阪朝日, 萬朝報, 名古屋新聞, 無産者新聞, 門司新報, 福岡日日, 北國, 社会運動通信, 新愛知, 神戸新聞, 神戸又新日報, 吳日日, 芸備日日, 自由連合新聞, 中国(27종)
기사 및 색인어 선정	한국지역 기사의 선정은 학생운동과 관련된 주제어 「격문」, 「고학생」, 「광주학생운동」, 「남경군관학교사건」, 「독서회」, 「동맹휴학」, 「중일 학생운동」, 「학생과학연구」, 「학생회」를 주제어로 선정하여 신문사 별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일본 지역 신문은 학생운동과 관련된 내용들만 색인화 하였다.
표목의 배열	모든 표목의 배열은 가나다순으로 하고, 동일표목 내에서는 게재 년 월 일, 면, 단, 순으로 정리하였다.
기사 내용의 기술규칙	· 기사 내용은 데이터베이스 주제어 검색 결과로 나타난 원문표기 대로 기술하였다. · 한국에서 발행된 신문의 기술순서는 『일련번호. 제목. 신문사. 년-월-일. 면/단(혹은 석-조간/면)』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같은 주제의 기사가 같은 일자 같은 면에 다른 제목 하에 실린 경우 이를 병립할 때 기사와 기사사이에 '/' 부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연도는 大正·昭和 등의 年紀는 모두 西紀로 통일하여 표시하였다. → 한국신문 예) 0001. 上海學生會檄文, 佛官憲에 俱樂部閉鎖를 當하얏슴에 對하여. 동아일보. 1920-05-13. 2/1 예) 0005. 上級校入學資格問題로 京城第一高普 上級生の 大動搖, 新교육령이 완전히 실시된 이때에 일본상급학교에 입학자격이 없다; 學校當局에 陳情書까지 提出//學生보다 校長이 尤急, 학무당국을 원망하는 듯한일, 교장加藤常次郎씨말//手續上의 問題일뿐, 방금 급히 교섭중이라는 학무당국 //今 春入學難奈何, 역시 이부제외에 도리가 없다고. 동아일보. 1923-01-19. 3/4 예) 0007. 海港學生에 寄附. 仁川各단체와 個人으로부터. 조선일보. 1921-05-19. 석간/3면 · 일본에서 발행된 신문의 기술순서는 『일련번호. 제목. 신문사. 년-월-일. [면/단]』 형식으로 기술하였다. 또한 신문의 대제목과 소제목의 구분은 '/' 부호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면/단]의 구분에서 석간은 [夕면/단]으로, 면단 표시가 불분명 할 경우는 []로 표시하였다. → 일본신문 예) 0002. 新旧日本人の争闘起らんとす / 朝鮮工夫の同盟休業(宇治川水電工事第七号トンネル. 60名, 帰国旅費要求). 京都日出. 1910/09/02. 예) 0149. 差別待遇が氣に喰はぬ / 短刀をつきつけた鮮人. 神戸又新日報. 1927-04-30. [夕2/5] 예) 0155. 鮮人學生二千名 / 休校を決議して帰国す / 噂は極めて大きい / 警視庁は大した事でないと 言ふ. 芸備日日. 1921-11-12. []

(2) 신문기사 검색결과

① 학생독립운동 관련 주제어

학생독립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격문, 고학생, 광주학생운동, 남경군관학교, 독서회, 동맹휴학, 중·일학생운동, 학생과학연구에 대한 기사색인 결과는 다음 <표 12>와 같다.

〈표 12〉 학생독립운동 관련 주제어 · 신문 검색결과

주제어	신문명	검색결과 건수	주제어	신문명	검색결과건수
격문	동아일보	266	남경군관학교	동아일보	113
	매일신보	41		매일신보	48
	조선일보	512		계	161
	조선중앙	16	독서회	동아일보	322
	중앙일보	43		매일신보	153
	중외일보	108		시대일보	16
	계	986		조선일보	250
고학생	동아일보	310		조선중앙	115
	매일신보	96		중앙일보	31
	시대일보	28		중외일보	62
	신한민보	17	계	949	
	조선일보	426	동맹휴학	동아일보	1445
	조선중앙	14		매일신보	263
	중앙일보	3		시대일보	191
계	894	신한민보		36	
광주학생운동	동아일보	682		조선일보	1959
	매일신보	79		조선중앙	86
	신한민보	20		중앙일보	30
	조선일보	678	중외일보	611	
	조선중앙	5	계	4,621	
	중앙일보	11	중·일학생운동	동아일보	87
	중외일보	92		조선일보	256
계	1,567		계	343	
학생과학연구	동아일보	41	학생회	동아일보	1452
	매일신보	11		매일신보	130
	시대일보	15		시대일보	49
	조선일보	54		신한민보	415
	중외일보	48		조선일보	466
	계	169		조선중앙	56
전체	신문	12,539			중앙일보
				중외일보	275
			계	2,849	

학생독립운동 관련 기사는 전체 12,539건으로 나타났다. 그 중 동맹휴학이 4,6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학생회 2,849건, 광주학생독립운동 1,567건, 고학생 894건, 격문 986건, 독서회 949건, 중일학생운동 343건, 학생과학연구 169건, 남경군관학교 161건 순으로 기사화되었다.

② 신문사별(국내)

<표 13> 학생독립운동 관련 신문·주제어 검색결과

신문명	주제어	검색결과	신문명	주제어	검색결과		
동아일보	격문	266	매일신보	격문	41		
	고학생	310		고학생	96		
	광주학생운동	682		광주학생운동	79		
	남경군관학교	113		남경군학교	48		
	독서회	322		독서회	153		
	동맹휴학	1445		동맹휴학	263		
	중·일학생운동	87		학생과학연구	11		
	학생과학연구	41		학생회	130		
	학생회	1452		계	821		
조선일보	계	4,718	조선중앙	격문	16		
	조선일보	격문		512	고학생	14	
		고학생		426	광주학생운동	5	
		광주학생운동		678	독서회	115	
		독서회		250	동맹휴학	86	
		동맹휴학		1959	학생회	56	
		중·일학생운동		256	계	292	
		학생과학연구		54	중앙일보	격문	43
		학생회		466		고학생	3
계	4,601	광주학생운동	11				
중외일보	격문	108	독서회	31			
	광주학생운동	92	동맹휴학	30			
	독서회	62	학생회	6			
	동맹휴학	611	계	124			
	학생과학연구	48	시대일보	고학생		28	
	학생회	275		독서회		16	
	계	1,196		동맹휴학	191		
	신한민보	고학생		17	학생과학연구	15	
광주학생운동		20		학생회	49		
동맹휴학		36	계	299			
학생회		415	전체(신문)	계	12,539		
계	488						

신문사별로는 학생독립운동보도에 대해 동아일보가 4,718건으로 가장 많이 기사화 했으며, 다음으로는 조선일보 4,601건, 중외일보 1,196건, 매일신보 821건, 신한민보 488건, 시대일보 299건, 조선중앙 292건, 중앙일보 124건 순으로 나타났다.

(3) 신문기사 내용

각 주제별, 신문별 기사내용을 보면 다음 <표 14>-<표 22>와 같이 보도되었다.

<표 14> 격문관련 기사

신문	격문	건수
동아일보	0016. 滿洲大同團宣言書 京城驛頭에서 沒收//謄寫版印刷의 檄文 郵便으로 各校에 配達, 시내 각종등교에 격문배달, 封套에는 五日附 光花門局 日附印//明順旅館搜索, 청년 한명 검거//共產黨의 朴大成 시내에 들어왔다는 정보도착//各校學生 十餘名 檢舉, 팔일 식양에//徹夜 變裝活動, 형용 못할 혼잡. 동아일보. 1926-06-10. 5/1	266
매일신보	0012. 學生檄文事件 四十三名全部送局 客驛各學校에 檄文配布한 犯人 廿九日鍾路署에서. 毎日申報. 1930-01-30. 2/1	41
조선일보	0049. 광주학생의 가해자 엄중 처벌을 요구등 4가지 조건을 낭독하고서 퇴교한 부산상교생/2명에게 퇴학 처분, 부산썬에서 잡아 취조중/격문 수천매를 전교생도에 반포/부산썬 활동개시 학생 2명을 검속하였다. 조선일보. 1930-01-11. 석간/2면	512
조선중앙	0001. 시국에 관한 격문을, 군인 학생에게 우송. 근일에 우송된 격문만 5종, 우송자는 동경방면의 좌익운동단체인 듯, 경찰, 헌병대 활동. 조선중앙. 1933-03-14. 2/1	16
중앙일보	0003. 대구 격문 사건 의외 방면에 확대, 새로운 중대사건을 발견하고 계속하여 활동중//검거한 총수 40여명, 검거된 사람의 중심인물은 그전 학생맹휴의 관계자들. 중앙일보. 1931-12-08. 2/1	43
중외일보	0009. 黃浦군관학생, 反蔣선언의 격문 배포, 매국거과, 反당 영유에 대한 동학 제군의 희생은 금물. 중외일보. 1929-10-06. 2/1	108

<표 15> 고학생관련 기사

신문	고학생	건수
동아일보	0072. 半島苦學生親睦會의 巡迴講演團來仁: 教育의 必要(金用達), 朝鮮의 現狀(呂運弘), 우리의 急務(張世淡)(仁川). 동아일보. 1921-12-25. 4/5	310
매일신보	0042. 朝鮮女苦學生三名 東京에서 悲觀投身 생활난과, 병으로 고학도 못하고 利根川畔에 怨魂. 毎日申報. 1927-05-06. 2/3	96
시대일보	0002. 꽃다운 몸매 숨긴 어여쁜 혼3, 연약한 몸으로 벌며 배우며, 우등생에 운동선수, 또는 훌륭한 웅변가, 여자고학생 주영애 양. 시대일보. 1924-04-03. 1/6	28
신한민보	0008. 노변에 내어 쫓긴 二十명 야권 고학생들이 받을 돈도 못 받고 쫓겨 나서. 신한민보. 1927-06-16. 2/1	17
조선일보	0017. 불온문서를 일본전국에 배포한 혐의자는 日支鮮人. 주범자는 명고육령 목순부 집필자는 조선인 張世行 支那 8고학생은 행위불명. 조선일보. 1920-12-29. 석간/3면	426
조선중앙	0003. 공산당으로 검거된 고학생 천삼백명, 작년중 경시청 검거 통계, 경무당국도 중대시. 조선중앙. 1934-02-08. 2/7	14
중앙일보	0001. 전조선을 휩쓰는 각지 검거의 선포, 대구사범 교유, 적화사건 거익 확대, 묘령여성 팔 명도 검거 취조. 중앙일보. 1932-02-27. 2/4	3

<표 16> 광주학생운동 관련 기사

신문	광주학생운동	건수
동아일보	0004. 光州高普 中學生衝突事件; 全南警察總動員 徹夜하며 嚴重警戒, 검거된 십여명은 엄중취조중 이오 두학교는 사흘동안 수업을 정지해, 雙方氣勢 依然險惡(光州에서 本社特派員, 金東進發信)//市街는 宛然한 戒嚴, 四 五作者도 檢束//入院한 高普負傷生 警察에서 一一調査//中學校側 學父兄과 知事以下 鳩首密議//無責任한 高普當局 學父兄側 非難沸騰//學務當局도 事態를 重視, 전반 공기가 악화했다고 感情의 由來는 深遠. 동아일보. 1929-11-06. 2/1	682
매일신보	0003. 光州學生事件에 對한 善後策을 協議 입성한 전남도량부장 총독부에 출두하야. 毎日申報. 1929-11-20. 2/8	79
신한민보	0003. 광주학생 피고 이십사명 대구 복심으로 호송. 신한민보. 1930-04-10. 1/4	20
조선일보	0001. 광주고보생과 중학생 충돌 20명 중경상, 단검과 기타흉기로 난투, 경관과 소방대 출동, 일본인 중학생이 조선여학생 놀려, 그 전날부터 사이가 좋지 못하여 불상사내이기까지 원인. 1929-11-03. 조선일보. 석간/2면	678
조선중앙	0004. 전남경찰부원이 장성에서 1명 검거, 광주학생사건의 관계자. 조선중앙. 1934-11-17. 3/1	5
중앙일보	0009. 광주사건 주모자 장석천 징역 2년, 24일 경성지방법원에서 山下재판장이 언도. 중앙일보. 1932-12-25. 2/1	11
중외일보	0002. 경중처서 소동시킨 서장, 진퇴가 문제, 그대로 진압시켜도 넉넉할 것을 경중 처서 인심 소동시킨 서장책임이 문제, 광주학생사건 속보//4일 오후까지 13학생 검거, 전부가 고보생도 뿐이다, 범위는 확대될 듯//부상한 학생은 치료 2주 소요, 아홉 학생이 모두를 일주 내외 이주의 부상//학무국 조사 개시, 진상을 조사하여 처리할 터. 중외일보. 1929-11-06. 3/5	92

<표 17> 남경군관학교 관련 기사

신문	남경군관학교	건수
동아일보	0017. 南京軍官生五名 朝鮮內에 潛入說, 某重大使命을 띠고 別서, 入境 各地警察嚴重搜索中. 동아일보. 1934-07-12. 2/6	113
매일신보	0036. 鍾路署에서 取調中인 南京軍官學校 生徒事件 擴大 安在鴻씨를 召喚 參考訊問. 毎日申報. 1936-06-04. 7/8	48

<표 18> 독서회 관련 기사

신문	독서회	건수
동아일보	0292. 檢學取調 三年 만에 麗水赤勞終豫 金龍煥等 十四名 公判에 回附 百餘名檢學했든 大事件//光州 學生事件 때부터 讀書會로 同志糾合 麗水赤勞準備會를 結成 七部署를 決定코 活動//職業別勞組로 研究會組織 印刷物로서 勞働者教養 青年會基金을 運動費로//發覺端緒는 召羅公普謄寫版. 동아일보. 1935-06-01. 2/1	322
매일신보	0020. 光州學生事件被? 檢事가 再次拘引 대구에서 광주로 압송 讀書會事件關係로. 毎日申報. 1930-05-23. 2/3	153
시대일보	0004. 독서회 창립총회, 마산구락부 회관에서. 시대일보. 1925-01-17. 2/5	16
조선일보	0026. 尙州讀書會 創立總會, 新思想研究를 目的으로 去月三十日에. 조선일보. 1926-02-07. 석간/1면	250
조선중앙	0013. 독서회 사건, 공소 공판 언도, 1명 1년역, 1명 징유. 조선중앙. 1933-03-30. 3/2	115
중앙일보	0007. 대구사범사건 송국, 독서회와 강좌개최, 대중회독에 전력, 중심인물은 경성제대 출신으로 대담무쌍한 잠행운동//중심인물 현준혁, 지하운동에 전부관련, 아니 관련된 사건이 없다//적색서적만 세가방, 경찰에 압수된 바//사건관계자 씨명//발각단서는 스파이 배척. 중앙일보. 1932-03-31. 2/6	31
중외일보	0028. 독서회 준비중 돌연 해산 명령, 광고문이 불온하다고 준비 위원을 엄중 취조, 몰상식한 사전경찰의 고압. 중외일보. 1929-11-01. 4/6	62

<표 19> 동맹휴학 관련 기사

신문	동맹휴학	건수
동아일보	0891. 徽文高普 盟休生 七十八名 總檢束 맹휴생이 일학년 수업을 방해하여 종로경찰서 경관대가 학생 총검속 五名 黜學 九十四名 停學//學校當局者는 善後策을 講究. 동아일보. 1928-10-24. 2/3	1445
매일신보	0017. 全州高普三學年生 全部同盟休學 教師의 不親切, 寄宿舍不設로 學校側憂念不已. 毎日申報. 1926-06-06. 2/5	263
시대일보	0031. 휘고 맹휴에 사회 알선, 휘문고보생 맹휴에 대하여 사회단체가 내막 조사 개시. 시대일보. 1924-06-26. 1/3	191
신한민보	0016. 확대되는 경신학교 맹휴 이삼학년 요구를 들으라고 오학년도 요구서를 제출. 신한민보. 1927-08-04. 2/3	36
조선일보	0029. 善隣商業學校朝鮮人學生 百三十餘名 同盟休學決議, 조선인을 본위로 하여 교육 하야 달나고 어제 아침에 결의문을 제출하고 일제히 휴학하였다. 조선일보. 1921-06-19. 석간/3면	1959
조선중앙	0013. 강릉농고 맹휴는 해결될 서광 묘연, 14명 정학 처분으로 재분규, 문제는 거역악화/ 정학 처분에 재연/ 정학된 학생/ 1년생은 등교, 2 3년생은 강경/ 학부형회에서 해결책 강구 중. 조선중앙. 1933-07-04. 4/4	86
중앙일보	0008. 第一高普 3년생 2백여명이 동요, 교실을 폐쇄하고 수업을 거절, 학교당국 6명을 퇴학/교사배척 외에 6개 조건 제출 ○○교육 반대 월사금 감하 등, 제일고보 동요 내용/동요 제2일엔 반수 등교 종로서 관망중. 중앙일보. 1931-12-16. 2/8	30
중외일보	0038. 함흥농고 맹휴해결, 파란국절을 다 치른뒤에, 마침내 오는 2학기부터, 일제히 등교하기로 되었다. 요구조건은 학부형이 담당. 중외일보. 1927-07-22. 2/1	611

<표 20> 중·일학생운동 관련 기사

신문	중·일학생운동	건수
동아일보	0074. 東西가 呼應한 大學生의 陰謀, 위험사상 가진 학생의 음모, 十五日 掲載禁止解禁//事件發端//主要都市連絡//研究로 實行에 起訴된 犯罪事實內容//公判은 明秋에//教授는 學生加擔, 총당끼리 서로 의론한 곳해. 동아일보. 1926-09-17. 5/1 0082. 奉天城內에 學生大示威運動 六日 決行하기로 決定//官權이 阻止하면 同盟休校斷行, 登校生徒는 極少數. 동아일보. 1927-09-07. 1/5	87
조선일보	0040. 獨立運動計劃의 發覺. 日本東京에서朝鮮苦學生 三百名이 조선안에 잇는 독립운동단과 연락하여 일을 계획하는 중에 선전문이 발각되야. 조선일보. 1923-03-20. 석간/3면 0096. 中, 불평등조약 폐기 운동. 학생 廢約會에서, 각 공사에게 致書, 북경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직된 학생폐약회는 상호 제휴하여 운동 촉진에 전력을 注하기로 결정하고 재중 각국 공사에게 치서함. 조선일보. 1924-08-06. 석간/1면	256

<표 21> 학생과학연구 관련 기사

신문	학생과학연구	건수
동아일보	0001. 學生科學研究會創立. 동아일보. 1925-09-29. 7/5	41
매일신보	0001. 學生風紀를 一新코자 科學研究會創立 련이지상주의를 타파하고 사치한 자에게 제재를 주자. 毎日申報. 1925-09-29. 2/1	11
시대일보	0015. 시내 각 단체 일제 수색!, 여섯 경찰서 총동원. 시대일보. 1926-06-10. 2/7	15
조선일보	0005. 學生圖書館 設立計劃. 去十五日朝鮮學生科學研究會 懇親會에서 과학서적의 필요성이 절실한 바 회원의 기증으로 기본서적을 만들기로. 조선일보. 1925-11-17. 조간/2면	54
중외일보	0011. 경향 각지의 학생중심, 검거 압력은 거의 맹렬, 각경찰 일제 활동, 총검속 백 수십 명, 형사대 철야 東馳西驅, 종로서만 사십사 명. 중외일보. 1928-11-10. 2/1 0035. 학생과학연구 광주사건조사. 중외일보. 1929-11-08. 2/9	48

<표 22> 학생회 관련 기사

신문	동맹휴학	건수
동아일보	0032. 밀양학우회강연회의 성황: 寡婦의 解放(金俊淵), 新時代와 我等의 急務(李東濟), 關稅問題(金年洙), 朝鮮의 民族性을 說하여 普通教育의 急務에 及함(徐椿). 동아일보. 1920-07-14. 3/12 0869. 音樂講演盛況, 定州邑內遊學生會主催: 覺醒하라(康基鳳), 現下朝鮮의 要求하는 青年(金順福). 동아일보. 1925-08-23. 3/1	1435 2
매일신보	0009. 滿員以上の 盛況中에 中止, 禁止로 遂解散 全鮮專門校 卒業生雄辯大會 열렬한 應變으로 만흔 감동을 주었으나 언동이 불온하다하여 맞참내 금지 해산. 每日申報. 1926-03-18. 2/1	130
시대일보	0045. 全都의 고대, 갈망하던 전문학생 應變은 금일, 조선의 최고학부의 학생의 應變은 과연, 일반의 기대와 희망에 벗지 아니하리라, 來하라! 중도청년회관으로. 시대일보. 1926-02-01. 2/1	49
신한민보	0083. 빠른 박사의 연설-조선은 일본도 중국도 아닌 조선은 조선의 조선이라고 하여. 신한민보. 1927-02-17. 1/1	415
조선일보	0003. 學生會 日本彈劾. 支那 學生聯合會總會와 上海 學生聯合會, 조선일보. 1920-07-26. 석간/2면 0171. 物情騷然한 全國各地 搜索 檢擧 押送 拘禁//消防隊 總動員, 海州 天道教堂 엄중 감시//全州, 廿餘處 搜索//平壤, 撤市한 市街에 警備自動車만//馬山, 各團體委員 召喚//新義州 二名은 押送 廿名은 拘禁//遙拜式 歸途에 萬歲高唱, 高敞高普學生//江景驛頭 警戒//固城, 八年만에 歸國한 朴桂順을 療病 中에 檢擧//洪城, 京城의 來客은 身體搜索//大邱, 洋裝女子 檢束 대구고보생도 잡혀//金堤, 경찰 徹夜 活動//安州도 경계엄중. 조선일보. 1926-06-13. 조간/2면	466
조선중앙	0029. 50여명 학생이 급장을 포위 난타, 마산상업학교에 불상사 발생, 주모자 4명 정학 처분/ 주모자 처분에 전교학생 등 분개, 학생회의를 열고 항의. 조선중앙. 1934-11-14. 2/1	56
중앙일보	0001. 전조선전문교 應變대회 금지. 중앙일보. 1931-12-04. 2/5	6
중외일보	0073. 신조선의 주인이 사자후할 今夜 기념관의 단상, 滿都 인기 정히 이 곳에 집중, 오라! 그리하여 이 應變을 들으라! 현상應變의 제일야. 중외일보. 1927-11-25. 2/1	275

① 신문사별(일본 내)

일본 내 학생운동을 조사한 결과 그 당시(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의 중앙과 지방에서 생산되어진 전체 27종의 신문 기사를 검색하여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기사가 수록된 20종의 신문의 기사를 발췌하여 기술하였다. 여기에서는 주제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적인 맥락에서 학생독립운동 관련 기사(163건)를 나타내었다. 京都日出(13건), 京城日報(15건), 九州日報(4건), 大阪毎日(20건), 大阪朝日(29건), 名古屋新聞(1건), 萬朝報(13건), 門司新報(8건), 福岡日日(14건), 北國(6건), 新愛知(1건), 神戸新聞(8건), 神戸又新日報(16건), 吳日日(2건), 芸備日日(2건), 中國(4건), 參陽新報(1건)와 사상계열 신문인 無産者新聞(1건), 社會運動通信(4건), 自由連合新聞(1건)<표 23>.

<표 23> 일본 내 학생운동관련 기사

신문	일본내 학생운동	건수
京都日出	0004. 妄動鮮人の判決 / 禁錮一年以下 (朝鮮學生大會の決議·宣言書配布(2·8獨立宣言)で出版法違反の20余名 東京地裁). 京都日出. 1919-02-09. [3/6]	13
京城日報	至極平穩なる東京鮮人學生の思想 / 竹内總督府事務官談. 京城日報. 1921-12-11. [2/6]	15
九州日報	0003. 鮮人學生下関へ来て補はる / 東京淀橋署からの手配り不逞學生の中心が. 九州日報. 1922-02-22. [夕1/2]	4

大阪毎日	0019. 不穩ヒラを撒き/メーデー攪乱計画/中学生へも働きかけの準備/検挙されたコップ系の魔手//小倉でも検挙/但し全部釈放. 大阪毎日. 1934-04-28. [5/6]	20
大阪朝日	0021. 両洋中学騒ぎ/五十名退学/学校当局の態度強硬/二週間ゴテつく(朝鮮人生徒のストライキ). 大阪朝日. 1931-06-09. [9/7]	29
名古屋新聞	0001. 医専在籍の朝鮮人 騒擾事件に關係して拘引 檄文を飛ばし氣脈を通ず. 名古屋新聞. 1919-04-30. [1/5]	1
萬朝報	0010. 検束された鮮人/警官と格闘した者もある/ホテル前では不穩な文字ある旗を振って検束された一学生. 萬朝報. 1920-09-03. [3/1]	13
産者新聞	0001. 朝鮮留學生が新興科学研究会. 無産者新聞. 1926-11-13. [3/9]	1
門司新報	0008. 鮮人大學生のトランクに不穩文書/下水署で嚴重取調. 門司新報. 1933/02/17. [1/5]	8
福岡日日	0009. 大アジア建設を目指し同胞朝鮮學生の覚醒/従来の民族的偏見を清算し内地留學生の結合. 福岡日日. 1933-07-01. [1/2]	14
北國	0001. 朝鮮の學生共産黨事件/治安維持法違反で/キョク黨員十八名悉く検挙/細胞組織, 盟休指導その他に活躍. 北國. 1930-01-27. [3]	6
社會運動通信	0003. 広島の中學生左翼戦線を馳駆, 朝鮮生まれの2名治維法違反で送局. 社會運動通信. 1932-10-11. [2/11]	4
新愛知	0001. 犯行鮮人は學生や飴賣 八月末から一日へ掛て 申合せた如く姿を隠した〇〇. 新愛知. 1923-10-22. []	1
神戸新聞	0005. 不良鮮人達が學生に強請, 水上署に検挙. 神戸新聞. 1928-04-25. [夕2/7]	8
神戸又新日報	0015. 若い朝鮮人苦學生が感ちがひして罪/人の名で運転手となる. 神戸又新日報. 1930-03-21. [夕2/4]	16
吳日日	0001. 広島の不穩文書貼付の/高校鮮人學生護送さる/更に連累學生の検挙に着手. 吳日日. 1929/03/19. []	2
芸備日日	0001. 鮮人學生二千名/休校を決議して帰国す/噂は極めて大きいが/警視庁は大した事でないと言ふ. 芸備日日. 1921-11-12. []	2
自由連合新聞	0001. 民族的差別に抗して全鮮學生起つ/「今青年の意氣を見よ」. 自由連合新聞. 1929-12-01. 42 [1/9]	1
中國	0002. 朝鮮學生騒動の首魁/吳の中学校に潜伏/秘密結社のリーダー/吳憲兵隊に捕へらる. 中國. 1930-05-07. []	4
參陽新報	0001. 鮮人差別待遇も有力なる原因 衝突事件の一解釈. 參陽新報. 1930-05-13. []	1

다. 재판기록자료와 학생독립운동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재판기록자료가 아카이브로 존재한다. 국가기록원, 일제강점기시대의 각 언론사, 정부보훈처, 대법원과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각급 학교도서관, 광복회 및 기념사업회 등. 재판자료에는 국내, 일본에서 체포되어 국내의 재판소로 송치된 사례와 국내나 상해, 만주에서 체포되어 일본으로 송치되어 형무소에 유치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재판기록자료를 보면 독립운동가들의 사찰→검거→송국→구치소 수감→송국→예심결정에 의한 예심본심→기소여부결정→구형→선고→항고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과정들을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광주학생독립운동 동지회가 편찬한 ‘光州學生獨立運動史’에는 <표 24>와 같이 ‘재판기록’(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1974, 93-258)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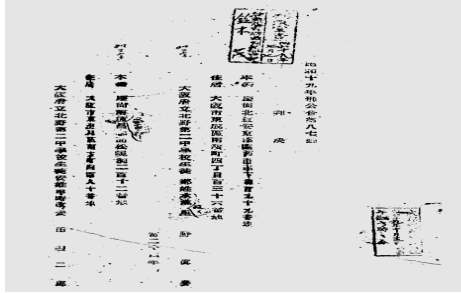
〈표 24〉 光州學生獨立運動 裁判記錄

연번	재판사건 판결문	페이지	연번	재판사건판결문	페이지
1	六·十萬歲運動事件 判決文	93	21	釜山第一商業學校示威運動事件 判決文	185
2	光州學生秘密結社 「醒進會事件」 豫審終結書 및 同 判決文	97	22	禮山大興公立普通學校示威運動事件 判決文	189
3	光州學生秘密結社 「讀書會事件」 豫審終結書 및 同 判決文	106	23	唐津石門公立普通學校示威運動事件 判決文	191
4	光州女高普秘密結社 「少女會事件」 判決文	118	24	濟州農業學校校長官舍被襲事件 判決文	194
5	光州高普 「李景采事件」 豫審終結書 및 同 判決文	120	25	咸興高普示威運動事件 判決文	197
6	光州高普同盟休校事件 判決文	123	26	咸興高普檄文事件 判決文	198
7	光州農業學校同盟休校事件 判決文	128	27	咸興永生中學校 盟休事件 判決文	201
8	光州高普盟休背反膺懲事件 判決文	130	28	鏡城高普檄文事件 判決文	203
9	光州學生獨立萬歲示威事件 判決文	132	29	鏡城高普示威運動事件 判決文	205
10	木浦商業學校獨立萬歲示威事件 豫審終結書 및 同 判決文	141	30	鏡城朱乙普通學校示威運動事件 判決文	209
11	羅州農業補習學校, 羅州公立普通學校示威運動事件 豫審終結書 및 同 判決文	146	31	清津高等女學校示威運動事件 判決文	210
12	光州高普校長室包圍事件 豫審終結書 및 同 判決文	148	32	城津鶴南普通學校盟休事件 判決文	213
13	京城中東學校示威運動事件 判決文	150	33	咸興高普讀書會事件 및 盟休事件 判決文	214
14	京城協成實業學校示威運動事件 判決文	153	34	城津鶴東普通學校盟休事件 判決文	217
15	京城女子實業專修學校 示威運動事件 判決文	155	35	學生革命黨運動 豫審書 關係資料	219
16	徽文高普不穩文書頒布事件 判決文	156	36	民衆大會事件 判決文	233
17	大邱學生秘密結社 및 同盟休校事件 判決文	158	37	朝鮮學生革命黨運動事件 判決文	236
18	晉州高普示威運動事件 判決文	173	38	大邱師範學校秘密結社研究會事件 豫審終結書	238
19	河東農業補習學校 및 河東普通學校神燈被襲事件 判決文	176	39	第二次 光州學生獨立運動事件 判決文 (其一)	245
20	榮州公立普通學校檄文事件 判決文	178	40	第二次 光州學生獨立運動事件 判決文 (其二)	247

이러한 재판기록을 정보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5〉 재판기록자료


자료유형	재판자료	
재판명	鄭允熙 協成實業學校 豫審判決	
재판소	京城地方法院	
발행사항(판결일)	1930.07.24	
자료의 학술적가치	光州事件に関連する日本の政治に反対する示威運動に加担する。	
주기사항	재판문 원문	

자료유형	재판자료	
재판명	金炳基 外 6人 判決文	
재판소	大邱地方法院	
발행사항(판결일)	1944.07.07	
자료의 학술적가치	朝鮮學生の相互親睦を図り、朝鮮文化を開発させ、特立に役に立つために白頭會を結成。	
주기사항	재판문 원문	

라. 조선총독부 학무국과 학생독립운동

조선총독부 학무국에서는 광주학생사건을 초기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全羅南道光州に於ける内韓人生徒鬪争事件の真相並びが鮮内諸子校に及ぼ一たる影響’이다. 이 극비문서에 대한 정보적 가치는 다음 <표 26>4)과 같다.

<표 26> 조선총독부 학무국과 학생독립운동

자료유형	단행본	
표제사항	朝鮮總督府學務局極秘文書	
발행사항	全羅南道光州に於ける内韓人生徒鬪争事件の真相並びが鮮内諸子校に及ぼ一たる影響	
	전라남도광주에서의日韩인생도투쟁사건의 진상과 조선내제학교에 파급되는 영향 (作成者: 朝鮮總督府學務局, 昭和5年 2月)	
형태사항	소책자로 28×20	
학술가치	매우 중요하고 가치가 높음,	
제작시기		
주기사항	종전에 강제인 및 고려대동아시아연구소 등에서 소개된 조선총독부학무국의 극비 문서 자료와 다른 형태로 작성된 원본(초판) 확보. 1929년 광주학생운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중간자료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전라남도광주에서 일어난 학생 운동의 진상을 일본총독부의 입장에서 정리한 중간보고서 자료를 소책자로 만들어 작성한 글이다. 기존자료는 소화5년 5월에 작성된 자료들이었으나 2월초에 작성된 것이다. 유사기록: 光州學生運動の 餘波와 道内各學校生徒 動搖顛末(作成者: 全羅南道, 昭和5年 4月 15日) 光州學生運動の 他志擴散을 警戒한 警務局長의 警告文(昭和4年 11月)	

이 자료는 공립광주중학교 생도와 광주공립보통학교 생도간 충돌, 광주공립보통학교생도의 시위운동, 사건 발생 직후 도 및 학교당국의 조치, 사건발생 직후 경찰당국의 조치, 광주공

4) 朝鮮總督府學務局極秘文書, 全羅南道光州に於ける内韓人生徒鬪争事件の真相並びが鮮内諸子校に及ぼ一たる影響(朝鮮總督府學務局, 昭和5年 2月)를 장우권, 김홍길, 박성우, 정근하는 이를 평역하여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상: 조선총독부 학무국의 광주학생사건에 대한 초기인식(광주: 동인출판문화원, 2014)’으로 출간하였다.

2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1호)

립보통학교 생도 제2차 시위운동, 재 광주 타지의 공립중등학교생도의 동요, 본 사건에 대한 본부의 조사와 조치, 전남지역 학생총돌사건의 수습과 해결, 본 사건의 이면책동(裏面策動), 광주사건이 조선 내 여러 학교에 미친 영향, 생도아동 불온행동 도별일람표, 사건발생월일 및 사건개요가 수록되었다. 또한 광주사건이 전 조선 내 학교에 미친 영향은 다음 <표 27>과 같이 순식간에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광주사건이 전 조선 내에 미친 영향

11월 03일	· 광주공립중학교생도와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생도간 총돌 ·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와 광주공립농업학교생도의 시위운동 · 광주공립여자고등보통학교와 전라남도공립사범학교생도의 동요
11월 19일	· 목포공립상업학교 학생 시위운동
11월 27일	· 전남 나주공립농업보습학교 및 나주공립보통학교 학생 시위 운동.
12월 02일	· 광주공립고등보통학교생도의 동맹휴교(광주학생사건과 직접관계 단정불가)
12월 05일	· 경성공립 제2고등보통학교 학생 동요.
12월 07일	· 경성공립 제1고등보통학교 학생 동요.
12월 09일	· 중앙고등보통학교, 경신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중등학교, 휘문고보, 남대문상업학교(모두 경성부 사립학교) 등의 학생시위운동
12월 10일	· 배재고보 및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근화여학교, 고등예비학교(모두 경성 시내 사립학교) 학생 동요. 남대문 상업학교 및 보성전문학교는 예정을 바꾸어 당일자로 겨울 방학을 선포함.
12월 11일	· 경성 공립농업학교 학생 동요. 배재 고등보통학교, 휘문 고등보통학교, 중등학교, 이화 여자전문학교,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협성실업 학교 (모두 경성 시내의 공립학교)는 임시 휴업을 선포함.
12월 12일	· 양정고등보통학교, 보성고등보통학교, 중앙고등보통학교, 경신학교, 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숙명여자 고등보통학교, 이화여자전문학교, 배화여자고등보통학교, 동덕여자고등보통학교, 중앙 기독교청년회학교, 경성실업 전수학교, 정신여학교, 경성실천여학교, 이화 보육학교 (모두 경성 시내 사립학교)는 임시 휴업을 선포함.
12월 13일	· 경성공립농업학교 학생 동요. 경기도 개성학당상업학교(사립) 동맹휴교.
12월 15일	· 함경남도 함흥 공립보통학교 학생의 동요.
12월 16일	· 경성 선린상업학교 (사립)와 인천 공립상업학교 학생 동요. · 함흥 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 동요에 의해 임시 휴업을 선포함. · 원산 공립상업학교, 영생학교, 영생 여자고등보통학교 (두 학교는 함경남도 함흥에 있는 사립학교) 학생들의 백지답안 제출.
12월 17일	· 함흥 공립농업학교 학생 동요. · 평양공립농업학교 1, 2학년, 숭실 전문학교(사립), 광성고등보통학교 2, 3, 4학년 (평양부 내의 사립학교), 사립 숭인학교 2, 3학년 (평양부 소재), 숭실학교 중학부 2, 3학년 (평양부소재 사립학교) 시험에 백지답안 제출. · 평양 공립고등보통학교 및 평안북도 선천 사립신성학교 학생들의 동요.
12월 18일	· 함흥 공립농업학교 임시휴업을 선포함. 평양 공립농업학교 2학년, 광성 고등보통학교 2, 4학년 (평양부 내 사립학교) 사립숭인학교 1, 3학년(평양부 내 소재)의 학생 등 백지답안 제출.
12월 19일	· 평양공립농업학교 1학년, 백지 답안 제출. · 광성고등보통학교 (평양부 소재 사립학교) 학생의 동요. · 춘천공립보통학교 학생 동맹휴교.
12월 20일	· 동래공립고등보통학교 학생 동맹휴교.
12월 23일	· 경성공립고등보통학교(鏡城公立高等普通學校) 학생 동요.

마. 일본외무성 아세아국과 학생독립운동

장우권 외(2014)는 2012년 연구자료 수집과정에서 일본외무성 아세아국에 소장된 외무성 비밀문건을 입수했다. 이 보고서는 1930년(소화5년)에 외무성 아세아국장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가 작성한 글이며 제목은 ‘소화5년(1930) 재외 조선인의 「3·1」운동 개황에 관한 건(‘昭和五年在外朝鮮人 「3·1」運動概況ニ關する件’(1930.3.22.))이다. 외무성 아세아국은 이 보고서를 내무성 경보국장, 육군성 군무국장, 참모본부 제2부장, 해군성 군무국장, 문부성 학생부장, 사법성 형사국장, 경시총감, 헌병사령관에 보낸다. 겉보기에 이 자료는 「3·1」운동을 다루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1929년 11월부터 1930년 4월까지 진행된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의 국외확산과정에서 간도, 북평, 상해 연해주 등지의 재외조선인과 지나인들의 문제인식과 연대활동을 담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한중연대의 중요한 뿌리가 1930년 초부터 강하게 재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당시 중국국민당, 대만청년단, 중국공산당을 비롯해 중국내 각지의 지나 신문들의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보도 내역을 다루고 있는 자료임을 알 수 있다. 이 문건은 당초 광주학생운동을 3·1운동에 필적하는 독립운동으로 본 아리타 하치로(有田八郎)가 중국 및 연해주, 호놀룰루 등에서 보도된 현지신문을 기초로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기사내용을 수집정리(발췌)한 것이다. 보고서는 조선학생사건에 관한 재외조선인과 지나인의 연동(朝鮮學生事件ニ關スル在外朝鮮人ノ行動及支那人ノ言動)이란 문건이 함께 딸려있다. 재미한인들과 재미중국동포들이 연대해서 조선학생학살을 규탄하는 청원서를 미국대통령과 국제연맹에 제출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작성경위는 일본 외무성 아세아국이 상해총영사관, 간도총영사관, 호놀룰루 총영사관의 등에 파견되어 있는 영사관 관료 및 영사관 경찰, 밀정을 동원하여 광주학생사건 직후부터 광주학생사건이 소강국면으로 들어가는 과정에까지 재외조선인 단체와 지나인들의 정치조직들의 주요 반응과 동향을 세세하게 기록해서 정리했다는 점이다. 이는 외무성 아세아국 관련들의 광주학생사건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단면이다. 이 자료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거나, 자료관리 여건이 불충분하여 누락되었던 광주학생독립운동 관련 단체의 동향과 여론보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1차 사료적 의미를 가진다. 외무성보고서는 상해, 무한, 청도, 봉천, 해림, 길림, 하얼빈, 봉천 등 각지에서 활동하고 있던 한인운동자들이 광주학생운동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어떠한 대응전략을 추진했는지를 보여준다. 이같은 배경이 해당 자료를 작성하게 된 중요한 동기라고 할 수 있다. 당시 일본관헌들은 광주학생운동을 광주학생사건, 전선학생소요사태(全鮮學生騷擾事態), 조선학생운동(朝鮮學生運動) 등으로 사용했다. 사태가 확대되자 보도통제를 가했지만 이는 의혹을 증폭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왔다. 재외조선의 사회에 광주학생사건 소식은 일파만파로 퍼졌고, 상해와 북평 지역 중국신문은 광주학생운동을 제2의 5·4운동, 혹은 제2의 3·1운동으로 불렀다.

바. 학생독립운동 학술연구 흐름과 동향

학생독립운동에 대한 연구는 해방직후의 사회적 혼란기에 운동사로서의 체계적 연구와 자료해제 없이 방치되었다. 남북한 모두 광주학생운동을 독립운동에서 중요한 역사로 간주해 왔지만 역사적 평가는 종종 정치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양동주의 항일학생사(1957)를 시작으로 광주학생운동에 대한 기록이 시작되었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평양사회과학원 연구소를 통해 김상룡(1957), 리중현(1959) 등에 의해 광주학생운동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북한당국이 북한지역에서의 광주학생운동 참여 학교 현황에 대해 실증적 연구조사를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1969년 3·1운동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김성식(1969, 1974) 등에 의해 학생독립운동이 조명되고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주도로 광주학생독립운동사(1974)와 정세현의 연구(1975)를 기초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규모와 전말이 어느 정도 윤곽을 잡게 되었다. 그 후 한정일(1987), 이현희(1987), 조동걸(1993) 등의 연구를 통해 광주학생운동은 다양한 연구성과를 이룩했다.

장우권 외(2014)는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연구 현황: 학생독립운동 학술연구의 흐름과 동향’에서 최근까지(2013년) 발표된 국내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에서 수록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여러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된 검색 데이터베이스는 한국사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RISS 통합검색(KERIS, 한국교육학술정보원), NDSL(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NDL(국가전자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디브러리(dbrary, 국립중앙도서관), 국회전자도서관(도서, 학위논문, 학술지 DB, 국회도서관), 전남대학교 도서관 등이다. 이 책에는 독립운동참여자들의 참여 동기, 운동참여방식, 투옥, 고문, 재판 등으로 접철된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전체적인 윤곽을 이해할 수 있는 각종 발표논문들과 증언기록, 학위논문을 수록하였다<표 28>.

<표 28>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연구현황

학술논문 (180편)	구성	학회지, 학술발표집, 논총(論叢), 논문집, 학술지로서 단행본 형태의 논문 등
	주요 내용	광주학생독립운동의 발단, 전개과정, 국내의 확산, 신간회, 동맹휴학, 성진회, 독서회, 소녀회, 근우회 등의 관련조직, 왕재일 등의 주요 운동가, 재일본유학생들의 독립운동, 3·1운동과 6·10만세운동과의 관계
	논문 내용 (예)	1. 제 목: 1920년대 민족독립운동의 諸樣相 :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2. 저 자 명: 김홍수 3. 발 행 처: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4. 학술지명: 아시아문화 5. 수 록 면: 65~84 6. 발행년도: 2000 7. 목 차 I. 머리글 II. 3·1운동 이후의 식민지 지배체제 III. 1920년대의 독립운동 IV. 1920년대 민족의 교육운동

	<p>V. 1920년대의 학생운동 VI. 끝글 8. 초 록</p> <p>본 발표는 3.1운동 이후 다양하게 전개된 민족운동 가운데 가장 지속적으로 전개된 민족운동의 주류인 학생운동을 동맹휴학운동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3.1운동 이후 식민지 지배체제의 변화가 초래되어 다양한 민족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1920년대 민족의 교육운동은 학교 설립운동으로 나타나 한민족의 역량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동맹휴학운동은 문화통치하 시기의 대표적인 민족독립운동의 주류로 동맹휴학운동을 중심으로 한 학생들의 항일운동은 1926년 6.10만세운동을 거치며 1926년 광주학생운동으로 확대되어 갈 수 있었다. 식민지하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학생운동을 통해 민족의 독립역량이 증대되어 갈 수 있었던 것은 3.1운동에 계기가 있다고 보며, 3.1운동은 미래의 독립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었던 성공한 역사로 재평가하고 있다.</p>
<p>구성</p>	<p>국내와 일본지역에서의 석사와 박사학위논문</p>
<p>주요 내용</p>	<p>경성고학당,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정신계승과 여성의 역할, 각 지역의 항일학생운동, 구한말 재일한국유학생의 민족운동, 3·1운동과 학생층의 역할, 시대일보·중외일보·중앙일보·조선중앙일보에서의 학생운동 고찰, 植民地時期における 朝鮮人女子日本留學生, 식민지시대 사회주의자들의 지역운동, 신간회의 창립과 사회교육운동, 一·二·九運動期學生運動, 在日朝鮮留學生の民族解放運動, 제7차교육과정 「한국근현대사」 교과서 서술분석, 한국신문의 저항성, 한국학생이 전개한 동맹휴학, 1920년 여성단체운동, 1930년대 항일학생운동, 1940-50 학생운동의 성격변화 등</p>
<p>학위논문 (69편)</p>	<p>1. 제 목: 1940-45년 학생운동의 성격변화 2. 저 자 명: 홍석률 3. 발 행 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 4. 형 식: 학위논문(석사) 5. 수 록 면: 1~89 6. 발행년도: 1990 7. 목 차 머리말 一. 國內民族解放運動의 變化 1. 武力抗爭과 民族統一戰線 강화 방침의 대두 2. 日帝敗戰에 대한 豫見의 확산 二.. 學生運動의 武裝化 1. 무장화의 원인 2. 무력항쟁의 推移 三.. 學生運動의 ‘反日聯合’化 1. 反日聯合運動의 대두 과정 2. 反日聯合運動의 전개 맺음말 8. 초 록</p>
<p>논문 내용 (예)</p>	<p>이 글은 1940-45년 사이 국내 민족해방운동을 규명하기 위한 일환으로써 학생운동의 성격변화 과정을 살펴본 것이다. 기존의 통설과는 달리 30년대 후반부터 국내 민족해방운동에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 변화란 이 시기까지 활동을 지속하던 사회주의 운동에서 무력항쟁을 준비하고 民族統一戰線을 강화하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는 국외 민족해방운동과 비교해 보았을 때 많은 한계를 갖고 있었지만 그 맥락은 서로 일치하는 것이었다. 특히 이러한 변화는 1940년 이후부터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한다는 인식이 일반대중들 사이에서도 확산되면서 자연발생적인 대중운동에도 과급되었다. 학생운동도 이러한 맥락에서 변화가 일어났다. 이 시기 학생운동은 이전과는 달리 무장화 되고 反日의 기치아래 제반 이념과 사상을 불문하고 연합하는 형태로 전개 되었다. 학생운동 세력들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한다는 사실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순간 민족해방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한다고 인식하였다. 이에 가장 적극적인 투쟁형태인 무력항쟁에 나서게 되었다. 이 시기 일제가 학생들에게 강요한 군사동원과 군사교련은 학생층의 이러한 움직임이 현실화 되는 데 하나의 원인이어서 작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학생운동은 제반 이념을 불문하고 反日에 동조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하는 형태로 전개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30년대 후반부터 국내에서도 나타났던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이전에 민족, 사회주의 학생운동 모두가 갖고 있었던 소극적 운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었다. 이러한 학생운동의 변화는 이 시기 국외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무력항쟁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해방을 준비해가고, 민족통일전선을 강화하려는 운동의 흐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p>

사. 기타 자료와 학생독립운동

위에서 제시된 자료 외에 출판된 것으로 수많은 단행본, 독립운동단체와 개인간의 주고받은 서간(書簡), 학교자료(교지, 동창회보 등), 개인의 기록(사진, 증언, 회고록, 묘비, 유족회 등), 단체자료(친목단체, 독서클럽, 비밀결사 등), 비도서자료(비디오테이프, 영화 CD, 동영상 등이 귀중한 아카이브이다<표 29>.

<표 29> 기타자료와 학생독립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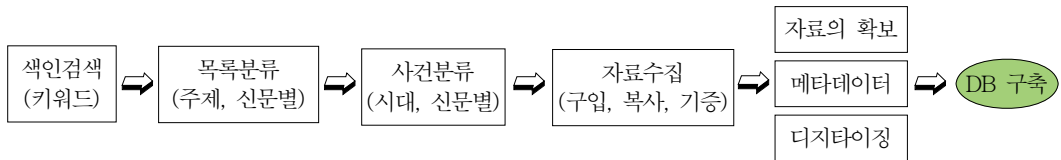
<p>제일조선인유학생 생활사의 기록으로 학교지 발굴 학교지, 동창회, 졸업장, 학생들의 입학 및 졸업관련 지역신문의 뉴스 등에 대한 기록 등</p>	
<p>獨立運動史5, 獨立運動史9, 獨立運動史6, 學生獨立運動史資料集, 獨立運動史資料集13, 獨立運動史資料集10, 獨立運動史資料集 別集 3, 在日朝鮮人資料集成(朴慶植, 총5권), 在日朝鮮人史研究(40권), 在日朝鮮人革命運動史(高峻石), 昭和特高彈壓史(총8권), 朝鮮人獨立運動秘史(坪江汕二), 抗日學生民族運動史研究(鄭世鉉), 在日朝鮮人史研究, 植民地時代在日朝鮮人運動研究(金仁德) 등</p>	
<p>낱장으로 쓰여진 독립운동가 역사회고록: 2.8선언의 11명의 서명자로 대표적인 항일독립운동가인 윤창석(尹昌錫)이 1964년에 3.1운동 55돌을 맞이하면서 한국독립운동사를 정리하기 위해 작성한 친필원고(三一獨立運動史抄) (원고지에 친필로 쓴 초고형태)</p>	
<p> (김도연의 졸업증명서: 1911.03.30.)</p>	<p> (천도교 청년회 발회식: 1921.04.05.)</p> <p> (광복군 참여학병: 1944(김준엽(金俊燁), 장준하(張俊河))</p>

.....동경유학시절 고등사범시험 합격자들이 대부분이 요직에을 점하고 군부고위층 장성들이 일제 사관학교 지원병 출신 만주군관사관학교 출신들이고 우리의 임정광복군과 동경에서 항일운동에 전념하던 애국충정 사나이들은 천대이 대상이었고 만주에서 국제시장을 무대로 아편밀수나 자행하던 자들이 사기와 모략 중상으로 얼룩진 우리나라 경제계와 정계를 휩쓸리고 있다는 사실. 또한 나의 유일한 친구들도 무슨 박사 무슨 벼슬아치를 자랑하다 싶히 사람이 변신되었다는 사실이고 보면 이것은 나의 체질에 극히 상반된 현실로...

이두표의 自敍傳 『人間貨物』 중에서

3. 지식정보자원과 아카이브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지식정보자원을 보존하고 있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기록보존소(국가기록원, 중국의 당안관, 일본의 공문서관, 러시아의 국가문서보관소와 기록관리센터 등)와 도서관(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각급학교도서관, 공공도서관, 일본의 국회도서관, 중국의 연변대학교도서관, 러시아국립도서관(전 레닌그라드도서관)) 등이다. 이러한 학생독립운동과 관련된 지식정보자원을 아카이빙 하는 과정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학생독립운동 관련 지식정보자원 아카이빙

가. 자료 수집절차

필자가 수행한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활동은 문헌조사, 조사대상 협력망 형성, 자료수집, 자료발굴로 이루어졌다<표 30>.

<표 30> 학생독립운동 자료 수집절차

조사활동	구체적 내용
문헌조사	· 철저한 사전 선행연구조사를 통해 관련문헌자료의 목록 정리 · 현지 기관과 상호협력관계를 체결하여 문헌자료 조사 및 수집
조사대상 협력망형성	· 국내 기관별 관련 자료의 소장처 조사 후 상호대차서비스를 통한 자료수집 · 현지의 대학, 연구소, 국책기관, 언론 및 공문서기록관 등과 공동협력개발
자료수집	· 현지 유학생, 전문 학자, 연구소 등과 연계해 연구비용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료수집의 전략을 마련하고 자료 수집, 도서관의 사서 및 관리자와 협력관계 구축 · 기록관, 문화센터, 자료실의 사서직원 및 관계자 면담을 통한 자료수집
자료발굴	· 현지의 한국, 일본, 중국조선인학자, 조선인학교, 개인, 사회단체, 언론단체 활동 · 한국, 일본, 중국현지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전임연구원 고용으로 조사의 수월성 확보

나. 자료 수집방법

(1) 1차 원자료 수집대상

수집대상을 크게 기록자료, 학교자료, 개인자료, 단체자료, 언론자료로 나눈다. 각 대상자료의 조사와 세부조사 단위는 다음과 같다<표 31>.

<표 31> 1차 원자료 수집대상

조사대상	조사단위	세부조사단위
기록자료	학위논문, 단행본, 학술논문, 연속간행물 국가공문서(재판문서, 사찰록), 개인기록 등	· 학위논문, 단행본, 학술논문, 연속간행물, 국가공문서(재판문서, 사찰록) 등 · 임시정부, 총독부문서, 재판문서, 심문조서, 경찰특고문 등 · 국민당문서, 중국공산당문서, 만주철도기록, 만주진출 일본인 학교 기록, 만주사찰보고서, 총독부문서, 재판문서, 심문조서, 경찰특고문서, 재판조선인실태
학교자료	학교정보, 교원정보, 학생정보, 학교연혁, 소재지정보, 동창회보 등	· 학교연혁, 교원명단, 학생명단, 졸업명단, 처벌내역, 전학기록, 졸업장(명예졸업장), 졸업사진, 학생사진, 교지, 수첩, 학적부, 교무기록, 학교일지, 학생수첩 · 上海租界地 조선인학교, 민립학교, 공립학교, 일본계군관학교 졸업자, 항일 군관학교, 학병기록, 입학기록, 졸업기록, 학교연혁, 교원명단, 학생명단, 졸업명단, 처벌내역, 전학기록, 졸업장(명예졸업장), 졸업사진, 학생사진, 교지, 수첩, 학적부, 교무기록, 학교일지, 학생수첩
개인자료	활동내역, 생존기록, 증언, 회고록, 유족회, 동지회, 기념자료 등	· 재판자료, 사건자료, 개인사진, 옥중수기, 심문조서, 회고록, 언론기록, 기념비문, 추모글, 편지, 옥중서신, 시, 낱장자료 등
단체자료	활동내역, 창립취지, 회원수, 회원명단, 참여형태, 학생진목회, 독서회, 비밀결사, 독립운동내역, 애국계몽운동, 재판정보	· 단체활동, 참여내용, 활동분야, 학생비밀결사, 친목회, 독서회, 학생회, 청년단체, 동지회, 기념사업, 후손회 등
언론자료	· 국내신문, 해외신문, 해외 한인신문, 기사 색인, 색인초록 등 · 일본지역신문 학생독립운동보도(사설, 논단, 사건 기사, 재판, 조직, 학교, 단체기사) · 중국지역신문(사설, 논단, 사건, 재판, 조직, 학교, 단체기사	· 국내신문(조선일보, 동아일보), 해외독립신문(獨立新聞(상해), 新韓民報(미국)), · 중국신문(上海時報, 重慶大公報, 大剛報, 大公报, 大众时报, 党军日报, 东北日报, 红旗日报, 红色中华, 建设日报, 解放日报, 武汉日报, 新华日报, 新民报, 新民报日刊, 新民报晚刊, 新中华报, 星报, 中央日报) · 일본신문(京城日報, 毎日新報, 讀賣新聞, 朝日新聞, 京都新聞, 京都日出, 京城日報, 九州日報, 大阪毎日, 大阪朝日, 門司新報, 福岡日日, 北國新聞, 社会運動通信), 학생시보(學生時報), 개벽전선(開闢戰線), 학지광(學之光), 독매신문(讀賣新聞), 민중시보)

(2) 원자료 수집, 해제, DB 구축

원자료의 수집은 역사기록자 및 전문가 집단 자료수집 병행(同友會誌, 學校誌, 地域誌 등), 독립운동관계 전문가 연계(延邊大學 등), 사진 및 기록자료, 작가의 유품작품(졸업사진, 졸업장, 동창회부, 日記, 성적표, 手記, 書畫) 등을 토대로, 자료의 가공 및 발굴 자료에 대한 해제와 정리를 한 후, 원문과 콘텐츠를 가공하여 검색 및 정보서비스가 가능한 DB를 설계·구축한다<표 32>.

<표 32> 원자료 수집, 해제, DB 구축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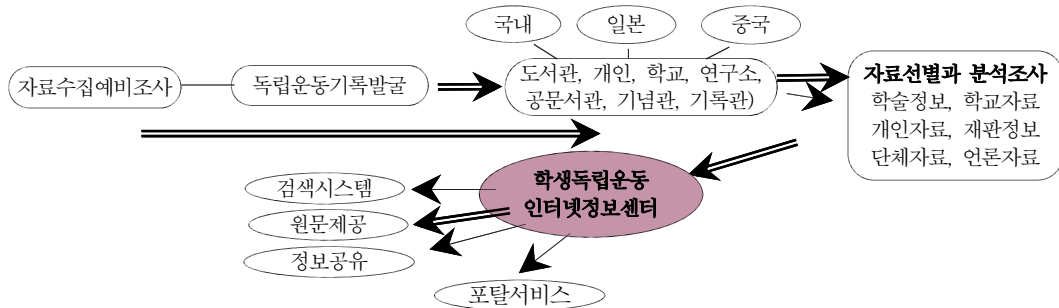
조사자료	조사진행과정	자료수집과정	자료해제과정	DB구축단계
기록자료 국가기록 학술도서 언론자료	○선행연구조사 ○현지조사계획 ○현지기관교섭	2010.07.12-2011.03.25	○일본국가공문서 : 朝鮮總督府文書, 警視廳記録簿, 地域誌(東京 京都 大阪 神戸), 地方公文書, 內務省, 司法省 등 기관문서, 治安報告, 査察記録, 特高月報, 植民地時代 懸念기록자료, 思想月報, 思想集報, 特高月報, 社會運動通信 등 ○단행본 775건, 학술지514, 학위논문 36건 등, 메타데이터, 서지정보, 원문해제, 번역해제 ○언론자료 : 朝日新聞, 讀賣新聞, 毎日新聞, 京都新聞, 京都日出, 京城日報, 九州日報, 大阪毎日, 大阪朝日, 労働農民, 労働通信, 萬朝報, 名古屋新聞, 無産者新聞, 社會運動通信, 自由連合新聞, 福岡日日, 北國新聞, 新愛知, 神戸新聞, 神戸又新日報 등	○메타데이터 입력 - 메타데이터, 서지정보 - 원문해제, 번역해제 - 목차, 초록 - 원문입력 ○원문해제, 초록 ○원자료 디지털이징 ○온라인 자료답재 ○자료구축 분석과 자문 - 수집자료 분석 - 전문가 평가자문
		방문기관 및 자료협력		
개인자료 재판자료	○선행연구 조사 ○현지조사 계획 ○현지기관교섭	2010.07.15.-2011.02.25	○개인자료 및 개인문서 : 메타데이터, 개인정보(본명, 가명, 본적, 주소, 활동지), 주요활동(참여시기, 참여단체, 주요활동), 수형사항(査察, 連行, 逮捕, 送局, 裁判), 서훈사항(서훈여부, 서훈명, 서훈시기), 학교정보(졸업(퇴학, 전학)), 현재, 동창회 ○재판자료 : 재판일반사항(裁判日, 裁判機關, 재판결과, 피고명, 수형기관, 수형기관), 재판문 원문 및 해제, 재판원문 등록(원문없을 경우 메타정보기록) ○전문가인터뷰 및 접촉 : 姜徳相, 姜在彦, 外村大 등	○메타데이터 입력 ○원문해제, 초록 ○원자료 디지털이징 ○온라인 자료답재 ○자료구축 분석과 자문 - 수집자료 분석 - 전문가 평가자문
		방문기관 및 자료협력		
학교자료 단체자료	○선행연구 조사 ○현지조사 계획 ○방문기관 접촉	2010.08.12-2011.02.25	○학교자료 : 메타데이터, 독립운동 활동내역, 사건처리과정, 운동참여자명단, 원문이미지, 낱장자료, 재일유학생동창회 ○단체자료 : 메타데이터, 단체정보, 조직구성, 활동목표, 운동성향, 참여회원, 사건결과, 조직성립, 조직해체, 연관조직, 친목회, 비밀결사, 원문해제, 원문입력, 사건처리과정	○메타데이터 입력 ○원문해제, 초록 ○원자료 디지털이징 ○온라인 자료답재 ○자료구축 분석과 자문 - 수집자료 분석 - 전문가 평가자문
		방문기관 및 자료협력		

자료수집에서 해제, DB구축과 제공은 다음 <그림 4>와 같은 흐름으로 구성되었다. 자료해제와 DB구축과정에서 사용되는 메타데이터의 서지정보입력 포맷과 항목은 다음과 같다.

- 단행본 : 자료유형(분류), 표제사항, 발행사항, 형태사항, 기본내용, 주기사항(목차)
- 학술지·정기간행물 : 자료유형, 논문명, 저자, 발행처, 권/호, 연도, 페이지, 목차/초록
- 학위논문 : 자료유형, 논문명, 저자, 석/박사, 대학원명/전공명, 수여연도, 목차/초록
- 개인자료 : 자료유형, 성명, 성별, 생몰년, 본적, 출생/주소지, 활동지역, 학교, 활동단체,

3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46권 제1호)

- 참여형태, 사건일시, 학생조직 활동, 관련인물, 키워드
- 재판자료 : 자료유형, 재판/사건명, 판결번호 및 일시, 장소(재판소), 언어, 키워드, 사건 개요, 관련인물
 - 신문자료 : 자료유형, 신문명, 기사명, 발행사항, 면/단, 자료해제, 주기사항



<그림 4> 자료수집에서 DB 구축과정

다음 <그림 5>는 메타데이터 DB설계와 입·출력화면의 예이다.

<p>예시 개인자료</p>		<p>한국을 대표하는 항일여성계몽운동가로 활약했던 여성독립운동가 황신덕, 숭의학교, 3.1운동, 동경유학생학회, 근우회, 조선여자총학회를 주도, 동아일보기자로 활약한 대표적 여성운동가였다는 점에서 1930년대 이전의 독립운동행적은 뚜렷하고 분명하다.</p> <p>근우회의 해체이후 사립학교를 맡아 학교교사로 자리를 옮기면서 자신이 교장으로 있던 중앙학교에서제자들을 일본군여자 정신대로 보낸 친일행적도 있다.</p>
<p>공적과 과실을 있는 그대로 적시하여 가감 없이 정리해 넣는 방식을 구현함</p>		
<p>날장자료</p>		
<p>개인자료 -> 날장자료, -> 서지정보 -> 재판자료, 단체자료, 언론자료 등 FRBR모델을 적용한 종합검색시스템</p>		

6) 학생독립운동과 관련하여 많은 재판기록자료가 존재한다. 재판기록자료를 보면 독립운동가들의 사찰→검거→송국→구치소 수감→송국→예심결정에 의한 예심본심→기소여부결정→구형→선고→항고로 이어지는 복합적인 과정들이 나타나 있다.

7) ‘全羅南道光州に於ける内韓人生徒鬪争事件の真相並えが鮮内諸子校に及ぼ一たる影響’(1930.3.22)에서는 조선총독부 학무국이 광주학생사건을 초기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화5년(1930) 재외 조선인의 「3·1」운동 개황에 관한 건(昭和五年在外朝鮮人「3·1」運動概況ニ關する件’(1930.3.22.))은 일본외무성 아세아국에 소장된 외무성 비밀문건으로 1929년 11월부터 1930년 4월까지 진행된 광주학생운동(光州學生運動)의 국외확산과정에서 간도, 북평, 상해 연해주 등지의 재외조선인과 지나인들의 문제인식과 연대 활동을 담고 있다.

8)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학술연구의 흐름과 동향’에서 최근까지 발표된 국내의 학술논문과 학위논문에서 수록된 광주학생독립운동에 관한 여러 연구동향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9) 학생독립운동 관련 지식정보자원 아카이빙을 제시하였다.

10) 기록자료, 학교자료, 개인자료, 단체자료, 언론자료에 대한 메타데이터 서지정보입력 포맷과 항목 그리고 DB설계와 입·출력화면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학생독립운동의 기초자료의 토대를 구축하고, 지식정보자원의 구성과 분포에 대한 학술로드맵을 통해서 학생독립운동 연구와 발전 그리고 교육현장에서 독립운동의 실제적 지식정보자원으로서 활용될 것이다.

참고문헌

- 光州學生獨立運動紀念事業會. 2009. 『光州學生獨立運動 略史』. 光州: 光州學生獨立運動紀念事業會.
- 光州學生獨立運動同志會 編. 1974. 『光州學生獨立運動史』. 光州: 國際文化史.
- 김기주. 2009. 광주학생운동 이전의 항일 동맹휴학. 광주학생운동의 전개양상과 의의. 『광주학생운동 8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엄(2009.11.2.)』. 한국독립운동연구소·전남대학교·호남사학회, 1-45.
- 김성민. 2013. 『1929년 광주학생운동』. 서울: 역사공간.
- 金性旼. 2006. 1920년대 후반 광주지역 학생운동 조직의 발달. 『한국근현대사연구』, 37: 193-232.
- 김호일. 1991. 『일제하 학생운동』.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김홍길. 2009. 광주학생독립운동과 5월 광주항쟁의지 네트워크. 광주학생독립운동 80주년 기념, 『한국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기획패널』: 1-26.
- 마쓰오카 세이코(松岡正剛) 외. 1998. 『정보문화학교』. 김역균 역. 서울: 살림.
- 박지대. 2011. 『기록관리개론』. 국가기록원.
- 사공복희, 장우권. 2004. 재중 조선족 정보자원 생산과 콘텐츠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9(1): 173-201.
- 사회문화연구소. 2000. 『사회학사전』. 사회문화연구소.
- 윤경로. 1988. 자료:이현상과 1928년의 학생공산당사건. 『역사비평』, 겨울호: 346-369.
- 이명규 외. 2005. 『재외한인의 문헌정보자원과 실제』. 서울: 집문당.
- 張錫興. 1994. 조선학생과학연구회의 초기조직과 6·10만세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
- 장우권. 2004. 정보문화창조과정에 관한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21(4): 292-314.
- 장우권. 2012. 코리안 디아스포라 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4): 404-425.
- 장우권 외. 2014.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연구 현황: 학생독립운동 학술연구의 흐름과 동향』. 광주: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
- 장우권 외 공역. 2014. 『제2의 3·1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조선학생사건에 대한 해외조선인의 행동과 중국인의 동조』. 광주: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
- 장우권 외 편. 2014. 『일제강점기 학생독립운동 신문기사 색인집』. 광주: 통일출판문화원.
- 장우권 외 편역. 2014.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진상』. 광주: 전남대학교 학생독립운동연구소.
- 趙東杰. 1993. 한국근대 학생운동 조직의 성격변화. 『한국민족주의 발전과 독립운동사 연구』. 지식산업사.
- 한국기록학회 편. 2008. 『기록학 용어 사전』. 서울: 역사비평사.
- 한국도서관협회. 2010. 『문헌정보학용어사전』. 개정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姜在彦. 1979. 『光州抗日學生事件資料』. 風媒社.
- 李磐松. 1933. 『朝鮮社會思想運動沿革略史』.
- 一記者. 1926. 在京學生團體의 內面. 『開關』, 72.
- 一月會思想運動史. 1926. 『思想運動』, 3(2): 36-41.
- 朝鮮總督府學務局. 昭和五5年 二月. 『全羅南道光州に於ける內韓人生徒鬪爭事件の真相並えが鮮內諸子校 に及ぼ一たる影響』. 朝鮮總督府.
- 評江汕二. 1979. 改訂增補 『朝鮮民族獨立運動秘史』. 改訂增補.
- Sandman, P. M., Rubin, P.M., & Sachman, D.B. 1972. 『Media』. N.J: Prentice-Hall Inc.

국한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ang, Seok-Heung. 1994. Initial Organization of Joseon Student Society for Science Study and 6·10 Movement. *The History Study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8.
- Chang, Woo-Kwon. 2004. "A Study on the Information Cultural and Creating Proces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1(4): 292-314.
- Chang, Woo-Kwon. 2012. "A Study on the Korean Diaspora Information Resources Management."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4): 404-425.
- Chang, Woo-Kwon et al. 2014. *Research Status of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Gwangju: Research Centre of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ang, Woo-Kwon et al. joint trans.. 2014. *The 2nd 3-1 Movement,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Abroad's Behavior on the Korean Student Incident and Chinese' Conformity*. Gwangju: Research Centre of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ang, Woo-Kwon et al. ed.. 2014. *A Newspaper Article Indexes of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the Japanese Occupation of Korea*. Gwangju: Research Centre of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ang, Woo-Kwon et al. ed. trans.. 2014. *The Truth of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Gwangju: Research Centre of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 Cho, Dong-Geol. 1993. *Korean Modern Student Movement Organization's Personalty Changes*. Knowledge Industry Co.
-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Society. 2009. *An Outline History of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Gwangju: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Memorial Society.
-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Comrade Society. 1974. *History of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Gwangju: Gukjae Moonha Sa.
- Kim, Kee-Joo. 2009. "an anti-Japanese Strike of Students former Gwangju Student

- Independence Movement.” *The 80th Anniversary of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2009 International Symposium*. 1-45.
- Kim, Sung-Min. 2013.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in 1929*. Seoul: Jgonggan.
- Kim, Sung-Min. 2006. “The Development of Late 1920’s Student Movement Organization in Kwang-ju area.” *Journal of Korean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37: 193-232.
- Kim, Ho-Il. 1991.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under Japanese Imperialism*. History of Immigration Research Institute of Independence Hall of Korea.
- Kim, Hong-Gil. 2009.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and May Gwangju Democracy Movement Will Network.” *The 80th Anniversary of Gwangju Student Independence Movement, Planning panel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 1-26.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0. *The Dictionary of Library Information Science*. Revised Ed.. Seoul: KLA.
- Lee, Myoung-Gyu et al. 2005. *Library & Information Resources of Overseas Korean and Reality*. Seoul: Jibmoondang.
- Masoka Seigo et al. 1998. *Information Cultural School*. Kim, Yeok-Gyun, translation. Seoul: Sallim.
- Park, Ji-Dae. 2011. *Records & Archive Management*. National Archives of Korea.
- Sagong, Bok-Hee, Chang, Woo-Kwon. 2004. “The General Facts and Characteristics of Information Resources and Contents of Chinese Koreans.” *Journal of North-East Asian Studies*, 9(1): 173-201.
- Social Research Institute. 2000. *Dictionary of Sociology*. Social Research Institute.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Compilation. 2008. *Dictionary of Records and Archival Terminology*. Seoul: Critical Review of History Co.
- Yoon, Kyung-Ro. 1988. Source: Lee, Hyun-Sang and Communist Party of the Student Case in 1928. *Critical Review of History*, Winter: 346-369.

